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4 Summer Vol.37



## In Schaeffler

page 06 세플러가 만난 사람  
관찰, 창의를 만들어내는 기본기



## For Life

page 32 힐링 가족 캠핑  
집 나가면 고생은 옛날, 내 집만큼 편안한 여름 캠핑



## To Communicate

page 47 따뜻한 시선  
'함께하는 사랑밭'과 일구는 행복한 마을 가꾸기





Cover Caption

이번 호에서는 '체험 1박 2일' 코너를 통해 전주공장 열처리생산팀과 함께 전북 부안에 위치한 능가산 내소사에서 '트레킹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봄의 안 좋은 기억들을 휴식과 자유의 시간을 통해 '비움의 미학'을 몸소 느껴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발행일 2014년 7월 15일(통권 제37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범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인쇄 예림 피앤피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AGE 06 : 세플러가 만난 사람**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박주상 대리가 만난  
 미쓰윤 서예원 대표



**PAGE 10 : 세플러를 찾아서**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사원들의  
 안산공장 탐방기



**PAGE 16 : 체험 1박 2일**  
 전주공장 열처리생산팀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 체험



**PAGE 20 : 세플러 애정촌**  
 박한별 사원과 조민정 연구원,  
 두 남매가 전하는 부산 이바구



**PAGE 22 : 부모님, 감사합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이강현 연구원과 그의 부모님

- Cover Story**  
 04 必也正名乎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우라  
 <논어(論語)> 「자로(子路)」
- In Schaeffler**
- 06 세플러가 만난 사람  
 관찰, 칭의를 만들어내는 기본기
- 10 세플러를 찾아서  
 다양한 설비와 제품라인을 갖춘  
 안산공장에서 설비 설계의 방향을  
 알아본다
- 14 원더풀 베어링  
 진공 펌프에 사용되는 베어링
- 16 체험 1박 2일  
 자연과 하나 되며,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여행
- 20 세플러 애정촌  
 세플러의 두 남매가 전하는  
 부산 이바구
- 24 부모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으로  
 성장하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 26 세플러인 탐구생활  
 여름철 발발하는 뱀살과의 '전쟁'
- 28 Happy Birthday  
 액션(?)을 통해 영웅들과 조우하다

# 세플러+원

2014 SUMMER Vol.37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PAGE 32 : 힐링 가족 캠핑**  
 서울사무소 경영지원팀 이종우 차장 가족



**PAGE 36 :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우승해, 노성기 사원의 스피닝 체험기



**PAGE 38 : 모두가 공명한 상식사전**  
 디자이너 매리 쿼트와 미니스커트



**PAGE 40 :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여행수기 공모전 수상작 2편



**PAGE 46 : 따뜻한 시선**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의 벽화 그리기 봉사

For Life

- 32 힐링 가족 캠핑  
 집 나가면 고생은 옛말,  
 내 집만큼 편안한 여름 캠핑
- 36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신나는 음악과 함께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 38 모두가 공명한 상식사전  
 실수가 알려준 문제 해결법
- 40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01  
 강원도 내린천을 소개합니다
- 42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02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는  
 지구 최대의 거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 44 100세 시대 나는 이렇게 준비한다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려면  
 하우스 푸어 구제 제도에 관해

To Communicate

- 47 따뜻한 시선 01  
 '함께하는 사랑밭'과 일구는  
 행복한 마을 가꾸기
- 48 따뜻한 시선 02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 49 새로운 시선  
 열정과 끼로 충만한  
 신입사원들을 소개합니다
- 53 Schaeffler Focus
- 55 Schaeffler News
- 59 Schaeffler Hotline

## 必也正名乎

##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우라

〈논어(論語)〉, 「자로(子路)」

공자는 “군자가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말이 서게 되고, 말이 서게 되면 모든 일이 반드시 행해진다.

군자는 그 말을 세움에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고 힘들다고 해서 되는대로 얼버무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이며, 모든 일에 이름을 걸고 바르게 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고전 속의 글귀지만 수천 년이 지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유근성 상무

경영지원 부문장

이 한장의 **엽서**  
In Schaeffler

●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생산팀 박세준 계장

창원공장 2PU T/B 생산팀 연삭 부문을 맡고 있는 박세준 계장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신임계장으로 발령 후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셋팅조 주임으로 근무할 당시 셋팅조원들과의 업무적인 문제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심한 갈등 끝에 주임보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에 부딪힌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생각이 컸다고 봅니다.

올해 3월 중순경 계장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추천을 받았을 시에는 많은 고민을 했으며 예전의 갈등 상황과 책임에 따른 중압감 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란 의문에 극구 고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수락하고 난 뒤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전혀럼 실패하지 않겠다”, “어려움을 극복하여 팀원들이 즐거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새로운 마음가짐은 책임감에 대한 중압감보다는 한번 해 보자는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이후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생산 및 현장 관리를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제 자신에 놀라웠으며 매일 새로운 최고 실적을 달성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침 출근이 즐거운 설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책임감은

그 조직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라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 저의 책임감에 의한 중압감에서 탈피했다 생각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 및 태도가 변하며 그 변화는 결국 조직의 성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에 100% 공감합니다. 아직 계장을 맡은지 3개월이 채 안되었지만 조그마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하여 회사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찰, 창의를 만들어내는 기본기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박주상 대리가 만난 미쓰윤 서예원 대표



## 미쓰윤을 기억하게 하는 '말 사장'의 재치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편강한의원 본점. 순정 만화풍 광고가 벽면 가득 그려져있는 계단을 올라 4층의 미쓰윤 사무실에서 한층 더 올라 가면 서예원 대표의 개인 사무실 겸 생활공간이 나온다. 문을 두드리자 말 가면을 쓴 서예원 대표가 나와 박주상 대리를 맞이했다.

**박주상 대리(이하 '박')** 처음엔 조금 놀랍고 당황스러웠어요. 인터뷰 하실 때 항상 말 가면을 쓰시더라고요. 미쓰윤 홈페이지에도 말 가면을 쓰신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말 가면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예원 대표(이하 '서')** '말'이라는 동물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편강탕 광고 성공 이후 인터뷰를 처음 하는 자리에서 조금 쑥스러운 나머지 주변에 뒹굴고 있던 말 가면을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요. '저 사람은 누구지?'라는 호기심을 갖고 미쓰윤을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박** 그리고 보니 회사 이름도 범상치 않네요. **서** 2009년에 편강한의원 인하우스 광고대행사로 창사를 했는데, 당시 이름은 '편강기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편강한의원 대표원장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회사명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제 앞에는 '미스실비아'라는 커피머신이 있었는데,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미스실비아'의 '미스'에 저희 어머니의 성씨인 '윤'을 붙여 즉흥적으로 '미쓰윤'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처음에는 사장이 윤 씨 성을 가진 여자는 동 다방이 연상된다는 둥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고 재미있는 이름이라 그런지 다들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옆면에 아무 설명 없이 대담하게 쓰인 '편강탕' 세 글자를 본 적이 있는가? 지하철 내에 붙은 한 한의사의 수배전단은 어떤가? 강남역을 온통 뒤덮었던 노란 배경의 순정만화풍 광고는? 지금껏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독특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편강한의원' 광고, 이를 만든 장본인, 광고대행사 미쓰윤의 서예원 대표를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박주상 대리가 만났다.



유머 소구를 이용한 광고와 모니터링을 통한 재치 있는 대응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서예원 대표. 그가 광고하는 편강한의원은 한의원 최초로 젊은이들도 많이 알고 방문하는 한의원이 되었다.

**재치에 분석과 통찰을 더하다**

서예원 대표는 타고난 순발력과 재치가 돋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좋은 광고란 순발력과 재치만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서예원 대표의 생각이다.

**서** 좋은 광고는 창의력과 분석력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치밀한 전략 역시 필요하죠. 그런데 전략 수립 때 의료광고는 많이 까다로워요. TV, 라디오에서의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신문, 잡지에는 가능한데 카피나 시안의 80~90%가 심의에서 걸려서 날아가기 일쑤예요.

**박**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담기 어렵겠네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버스에서 광고를 하셨네요? 아예 모든 설명을 없애고요.

**서** 2009년 당시 버스광고는 심의 대상도 아니었고요. 분석 결과 버스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광고를 보려고 주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특성을 간파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딱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광고가 바로 버스 옆면에 '편강탕' 세 글자만 궁서체로 써놓은 티저 광고입니다.

**박**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었군요! 매체에 대한 통찰력까지 있었기에 이 광고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주변 상황을 주시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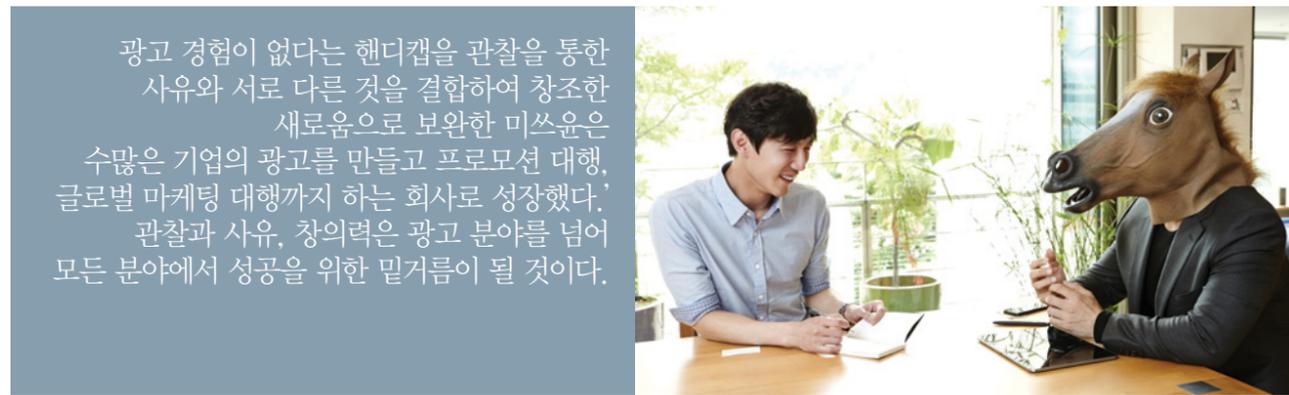
'편강탕'의 버스 티저 광고는 광고를 접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제품명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편강탕' 광고가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가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서** 저는 SNS와 검색엔진에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언급되고, 검색되는가를 항상 모니터링해요. 지금 <SNL코리아>에도 출연하고 계신 유병재 씨가 저희 버스 광고를 보고 '편강탕'이란 단어를 '정체불명의 것이 눈에는 매

번 밟힌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도 제가 3시간 만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로 '편강탕'이라고 수놓인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박** 저도 기억이 나요. 유병재 씨가 그 모자를 받았다고 다시 재미있게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더욱 화제가 됐었죠. 인기 아이돌 그룹 사이니 덕에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서** 그렇게 SNS에서 편강탕 열풍이 불고 있을 때 저희가 집행한 광고가 순정만화풍 광고입니다. 순정만화의 주인공 같은 캐릭터와 "그래요, 나 천식 있는 여자예요!", "어머, 이 미친 피부결 좀 봐. 폐가 깨끗해지니 피부가 HD급이네!" 등의 카피를 쓴 광고였어요. 사이니의 한 멤버가 이 광고가 재미있다고 트위터에 쓴 글을 보고, 미쓰윤에서는 사이니의 컴백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띄우고 간식 '조공'과 함께 편강탕 모자를 선물하며 계속해서 사이니 멤버, 사이니 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광고 경험이 없다는 핸디캡을 관찰을 통한 사유와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하여 창조한 새로움으로 보완한 미쓰윤은 수많은 기업의 광고를 만들고 프로모션 대행, 글로벌 마케팅 대행까지 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관찰과 사유, 창의력은 광고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관찰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본**

**박** 개인적으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는 성공한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강탕 광고는 실제로 제품의 인지도와 매출 향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가히 성공적인 광고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광고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서** 저는 모든 일에서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편강한의원의 경영을 돕고 있었는데, 편강한의원에서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 광고료를 절약하자는 생각으로 인하우스 광고대행사인 미쓰윤을 차렸어요. 광고를 전공한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셈이었죠.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관찰'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은 나중 일이었고요.

**박** 시장조사나 모니터링과 같은 관찰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주변을 관찰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관찰은 차별화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호기심이나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한다고 생각해요.

**박** 창의력과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서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서** 저는 이종문화의 결합을 좋아합니다. 그 예로 순정만화풍 편강탕 광고를 들 수 있겠네요. 저도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우연히 여직원 책상에 놓인 순정만화책을 보고 있다가 '이걸 우리 광고에 결합해보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편강탕 극장 광고도 마찬가지로요. 극장광고와 웹툰의 결합이죠. 이렇듯 관찰과 우연으로 만들어진 이종문화의 결합이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terview +one**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박주상** 대리

서예원 대표님께서 여러 차례 관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있지만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 자기도 모르게 배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저도 업무를 할 때 단순히 반복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도 다시 볼으로써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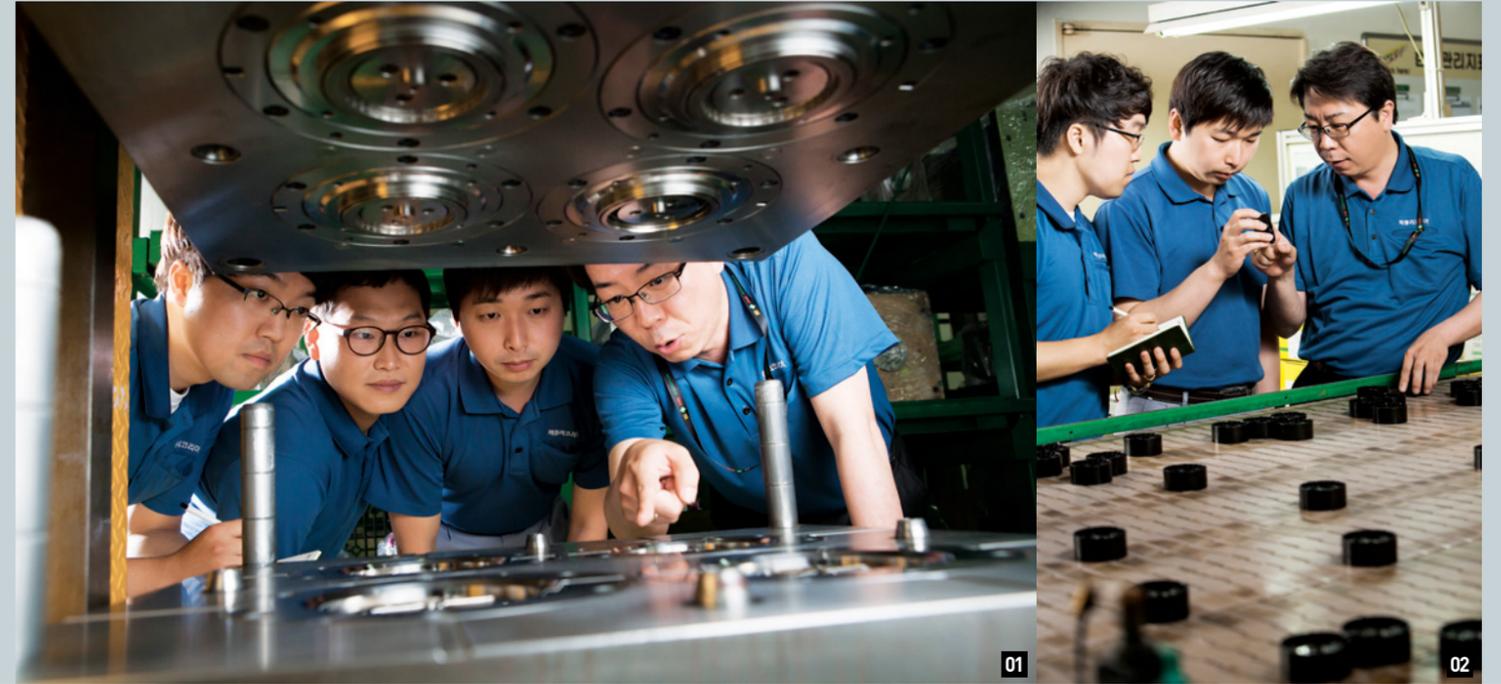


# 다양한 설비와 제품라인을 갖춘 안산공장에서 설비 설계의 방향을 읽어낸다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사원들의 안산공장 탐방기



연구소 전용기개발팀은 베어링 연삭기, 조립기, 슈퍼기(호닐)를 개발, 제작, 조립하여 시운전과 그룹사 납품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설비가 곧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늘 보다 나은 설비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최신 설비를 갖춘 안산공장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했다.



01 스트러트 베어링을 찍어내는 틀인 사출금형 정비 공정  
02 볼 베어링의 외관에 플라스틱 소재를 사출하여 생산되는 아이들러 풀리(Iidler Pulley)

##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안산공장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베어링은 다른 사업장의 생산 제품에 비해 다품종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INA' 브랜드는 안산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다 보니 생산하는 설비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고 특히 독일에서 수입된 최신 설비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라인이 많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안산공장 사업장을 둘러보고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소 전용기개발팀의 김상수 연구원과 조태관 사원, 김성민 사원이 참관의 기회를 가졌다. 안산공장 사업장을 소개하는 역할은 생산 공정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생산팀 이승민 부장(생산팀장)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 최신 설비와 다양한 공정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안산공장의 생산 현장은 크고 넓은 생산 현장이기보다 정밀한 전자 회로판처럼 잘 짜인 생산 라인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다양한 라인업의 생산 품종에 알맞도록 다양한 설비들이 먼저 눈에 들어 왔는데, 처음으로 둘러보게 된 공정은 자동차 밸브(점화플러그)에 들어가는 '탐펫'을 생산하는 공정이었다. 코이닝 프레스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단단하게 만드는 열처리공정과 레이저로 마킹하여 그룹을 나누는 그레이딩 공정을 차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어 스트러트 베어링을 찍어내는 금형을 정비하는 사출금형 정비 공정과 체인 텐서너 조립과정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베어링 외관에 사출물을 입히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베어링은



(좌측부터)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조태관 사원, 김성진 사원, 김상수 연구원, 안산공장 생산팀 이승민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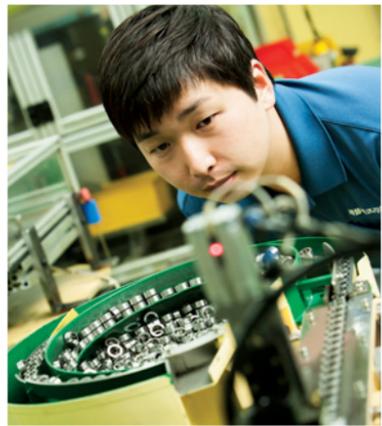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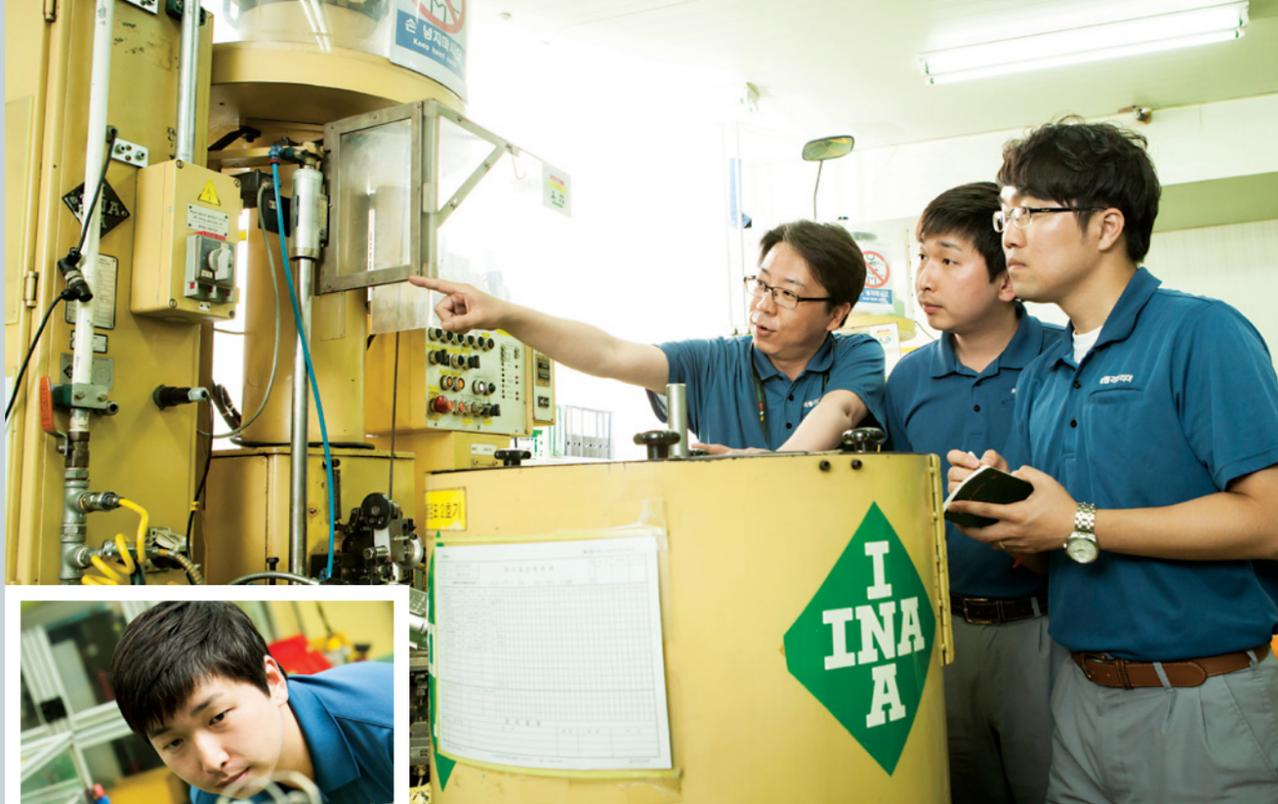
## 보호 세플러를 찾아서 그 후... 안전과 청결이 우선된 효율적인 사업장으로 개선

전주공장 견학 후 '3정 5S'의 안산공장 적용 개선 사례

지난번 세플러 전주공장 견학 시에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던 부분은 생산현장 내의 '3정 5S'의 적용 부분이었다. 전주공장에서의 주요 벤치마킹 포인트를 안산공장 사업장에 적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생산 현장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소개한다.  
기존의 NORO조립기 오일받이 부분에 오일이 많이 떨어져 청소가 어렵고 불편했던 부분을 드레인 배관 설치를 통해 오일 탱크에

누유 되던 오일을 직접 저장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장치했다. 또한 컨베이어에서 제품을 피더기로 낙하 시 제품이 튕겨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불량 및 불필요한 청소 시간이 발생하던 것을 컨베이어와 피더기 사이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제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그밖에도 설비 사이에 누유 되던 부분은 모두 드레인 라인 설치를 통해 폐유통으로 직접 모일 수 있게 하여 사업

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보일러실 등의 바닥에 방수 도로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새롭게 도색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전체에 '3정 5S'를 적용하고 있다.  
전주공장에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안산공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청결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안산공장 생산현장의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따라 생산한 설비와 생산 공정을 꼼꼼히 둘러보는 연구소 사무원들

### Interview +one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김상우 연구원

독일 최신 설비가 많은 안산공장에 오면서 설비의 메커니즘을 배워서 앞으로 설비를 설계할 때 참고하여 보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안산공장의 설비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형변들의 빠른 롤 체인지, 혁신적인 기계 설계로 셋업타임 단축과 최적의 사이클 타임을 구현할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플러그룹 내에 교류를 확대하여 각 사업장 간의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자동차 엔진에 사용될 예정이고 한다.  
특히 자동차 캠(cam)과 밸브의 매개체인 SLH를 조립하는 공정에서는 다른 공정에서와 달리 사람이 직접 조립하지 않고 자동화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그밖에도 안산공장만 생산하고 있는 'INA'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설비들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 계획적으로 잘 정돈된 생산라인의 배치가 돋보인다

안산공장은 생산 공간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작업 환경이 쾌적하고 업무 능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그동안 작업공간과 설계 간의 공간이 넉넉해야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단지 시각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잘 짜인 이동 동선과 각각의 설비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를 통해 생산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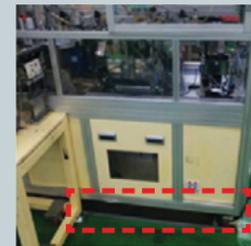
을 극대화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력과 자동화 적절한 배치를 통한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 시킨 부분은 새삼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안산공장의 생산 공정을 차분히 둘러보던 조태관 사원은 역시 설비 설계 전문가답게 "연구실에서 보지 못했던 설비들이 많았고 각각의 설비 마다 특징이 달라 생소했지만, '다른 설비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자신의 업무에 적용해야 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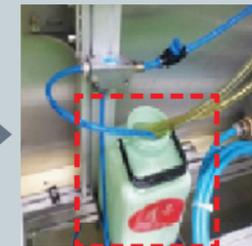
연구소 사무원들의 안산공장 탐방은 이처럼 막연히 각 사업의 차이점을 둘러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 고민을 남기게 되었다. 안산공장에서 살펴본 장단점들이 연구소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내심 기대가 커지는 바다.

### 개선 사례

#### 오일 누유 개선



**개선 전**  
NORO조립기 오일받이에 오일이 많이 떨어져 청소가 어렵고 불편함.



**개선 후**  
설비에서 누유 되는 오일을 드레인 배관을 제작하여 오일 탱크로 드레인 시킴.

#### 보일러실 페인트 작업



**개선 전**  
보일러실 물탱크 및 바닥 페인트 벗겨짐.



**개선 후**  
보일러실 물탱크 및 바닥 페인트 도색 작업 실시.

#### 컨베이어 받침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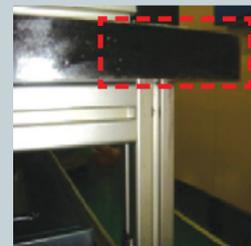


**개선 전**  
컨베이어에서 제품을 피더기에 낙하 시 제품이 튕겨 바닥으로 떨어짐. 불량발생 및 불필요한 청소시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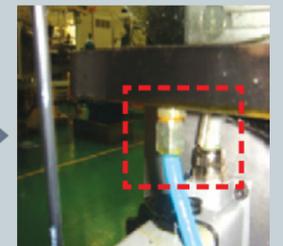


**개선 후**  
컨베이어와 피더기 사이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제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함.

#### 미크로사 에멀전 받침대 설치



**개선 전**  
에멀전 받침대로 떨어지는 에멀전 드레인 라인이 없어 바닥으로 넘치는 현상 발생. 불필요한 청소시간 낭비.



**개선 후**  
받침대에 에멀전 드레인 라인을 만들어 탱크로 보냄.

# 현대기술의 집약체, 반도체 공정에도 베어링이 필요하다!

진공 펌프에 사용되는 베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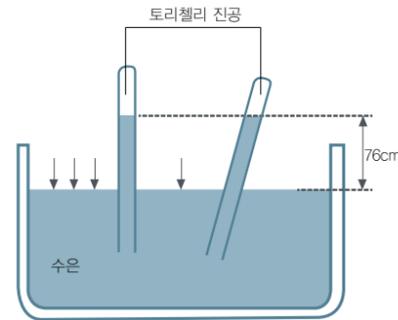
현대 산업의 많은 공정은 진공 상태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공정의 이온 주입, 건식 식각(dry etching), 증착(CVD) 등 많은 공정은 진공 환경이 필요하다. 제품 자체가 진공 상태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 램프, 진공관, CRT 등이 그렇다. 이때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가 바로 진공 펌프이다.

## 에너지가 제로인 진공 상태

진공의 사전적 의미는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진공을 에너지가 0인 공간으로 이해하는데, 이런 공간에서도 양자역학적 효과로 쌍생성, 쌍소멸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전 물리학의 관점에서, 어떤 용기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더라도 극히 낮은 증기압의 영향으로 용기 표면의 물질이 증발해 완전한 진공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일반적으로 진공으로 분류한다.

진공 상태, 즉 대기압보다 낮은 기압을 만드는 방법은 외부와 격리된 공간의 내부에서 공기를 뿜어내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넓은 의미에서 진공 펌프라 한다. 인공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가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토리첼리는 수은을 채운 유리관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워 대기압과 평형을 이룬 수은 기둥과 유리관 사이에 진공을 만들었다. 오늘날 바로미터(barometer)로 알려진 장치와 동일한



## 토리첼리의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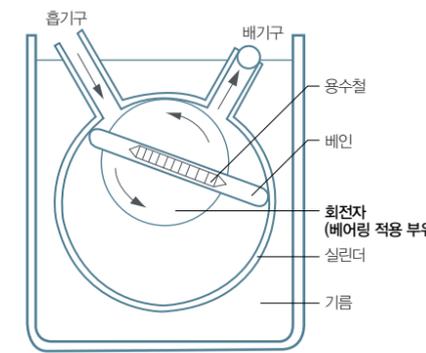
1643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토리첼리는 유리관과 수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즉, 단면적 1cm인 한 쪽 끝이 막힌 길이 1m의 유리관 안에 수은을 가득 채운 뒤, 수은이 담긴 그릇 안에 거꾸로 세우면, 유리관 안의 수은주는 그릇에 담겨 있는 수은의 표면으로부터 76cm의 높이를 항상 유지하게 된다. 이때 유리관 위쪽은 진공상태가 되는데 이를 '토리첼리 진공'이라고 한다.



건식진공펌프(Dry Vacuum Pump) 엘오티베콤社



고정밀 볼 베어링(Super Precision Ball Bearings)



진공 펌프/회전식 진공펌프의 원리

원리이다. 현재도 많이 쓰이는 기압의 단위 mmHg(Hg는 수은의 원소 기호이다.)가 여기에서 유래했다. 토리첼리의 이름은 기압의 단위 Torr에 아직 남아 있다.

## 진공 펌프의 과학적 구조와 베어링

진공 펌프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는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 흡기부로 유입된 공기가 계속 배기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공기를 빼내면 흡기부의 진공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진공 펌프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달성할 수 있는 진공도는 낮은 로터리 베인 펌프 외에 피스톤 펌프, 스크롤 펌프, 스크류 펌프, 루츠 블로워, 터보 분자 펌프 등 다양한 종류의 진공 펌프가 사용된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진공 펌프를 사용할지는 요구되는 진공 펌프가 사용될 주위 환경에 따라 적절히 결정된다.

모든 진공 펌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진공 펌프가 회전력을 동력으로 이용한다. 이런 구조로 작동하는 진공 펌프에는 베어링이 필요하다. 진공 펌프는 일반적으로 베어링에 전달되는 경방향 하중의 크기보다 축방향 하중의 크기가 크므로 축방향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베어링이 사용된다. 회전 속도는 작동 메커니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루츠 블로워나 고진공용으로 사용되는 터보 분자 펌프는 속도가 높은 편이므로 베어링의 허용 속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루츠 블로워나 스크류 펌프와 같이 평행한 두 축이 회전하는 구조에서는 축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베어링 틈새를 적절히 선정해 운전 틈새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운전시 축의 휨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플러는 자체 베어링 해석 소프트웨어 BearinX®를 이용해 베어링 운전 틈새와 축의 팽팅, 휨 등을 자세히 계산해 적절한 설계 요소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정밀한 회전 운전을 위해 일반급보다 정밀도가

향상된 제품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

## 베어링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 진공 펌프 반도체 설비

베어링에서 윤활은 베어링 성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윤활이 적절히 되지 않는 베어링은 이른 시간에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진공 펌프의 경우, 기압 차에 의해 윤활제가 증발하기 쉬운 환경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윤활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파손되지 않고 운전될 수 있는 베어링이 유리하다. 세라믹 전동체를 이용한 베어링은 이런 조건에 강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제작되는 진공 펌프의 상당수가 반도체 설비에 사용된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에 베어링이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식으로 인한 베어링 파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CVD 공정은 강한 부식성 물질이 많이 사용돼 베어링 파손이 잦은 어플리케이션이다. 따라서 부식성 화학 물질에 저항성을 갖는 PEEK, LPPS 등의 소재로 제작된 베어링이 많이 사용된다.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첨단 설비의 베어링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진공 펌프 설계도 저마찰, 고효율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라믹 전동체를 사용해 마찰을 줄인 제품도 관심을 받고 있다. 베어링은 진공 펌프 내에서 마찰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찰 발생을 줄여 효율을 높이려는 진공 펌프 제조사들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산업의 꽃,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진공 펌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공 펌프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설계, 제작된다. 세플러에서는 Barden 고정밀 베어링, 하이브리드 베어링, 특수 재질 케이지를 사용한 베어링 등 진공 펌프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자연과 하나 되며,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여행

전주공장 열처리생산1팀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 체험

저녁 아홉 시. 밤의 산사는 고요했다. 그 동안 차마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가 창문을 넘어왔고,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보는 불빛 하나도 없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모두들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큰 기척 또한 없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다들 모처럼 맞이하는 정적을 기도하듯이 조심스럽게 즐기고 있었다.



(앞줄 왼쪽부터) 객문석 주임, 백정훈 사원, 김문석 사원, 양대일 주임 (뒷줄 왼쪽부터) 이득노 부장, 우대봉 계장, 유중선 사원, 박영곤 부장, 양선규 사원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의 입장으로 참여한 템플스테이, 색다른 1박 2일 체험이었다.

## 색다른 1박 2일, 미리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템플스테이. 말 그대로 불교의 교당인 절에서 하루를 묵는다는 뜻이다. 전주공장 열처리생산1팀이 '체험1박2일' 코너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는 말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시큰둥' 했다. 이전의 여느 팀들처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불교라는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관이 한몫하기도 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난 봄,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의 입장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전의 그 어떤 '1박2일' 체험보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들의 템플스테이 여정을 소개해본다.

## 종교의 색깔을 버리고 자연과 만나는 하루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면서, 체험 여행도

'힐링'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처음으로 주도한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다.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생겨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의 큰 사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찰마다 특징을 살려 스님의 일상을 따라 해보는 체험형부터 사찰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형 등 다양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이미 많은 이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에 전주공장 생산1팀이 참여하게 된 곳은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능가산 내소사로 주말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자연과 하나 되기, 내소사 트레킹 템플스테이'였다. 스님들의 일상 체험과 함께 트레킹 일정이 포함된 특별한 템플스테이다.

##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사찰에서의 밤

토요일 오후 3시. 전주공장 생산1팀 9명의 팀원들이 내소사 입구에 집결했다. 다들 가

벼운 옷차림에 간단한 소지품만을 가지고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곳으로 모였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우리회사 직원 9명과 일반인 참가자 7명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템플스테이 장소에 모인 이들은 우선 개량생활안복으로 된 체험복으로 갈아입고 템플스테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모였다.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담당하는 원정스님의 안내에 따라 일정 소개와 참가자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입재식부터 시작되었다. 입재식에서 원정스님은 "이번 체험 기간 동안 채우려고 오신 분은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고, 비우려고 오신 분들은 모두 비우고 가길 바란다."며 템플스테이에서 각자의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입재식 이후 사찰 소개가 이뤄졌는데, 직접 사찰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설명이 이어졌다.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답게 서가래 하나에도 이야기와 전설이 이어졌고, 주요한 문화재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었다. 보물 29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과 대웅보전 안에 위치한 '백의관음보살좌상'과 같은 문화재는 보는 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전해 주었다.



만 음식을 담아서 남김없이 먹는 식사 방법으로 이 또한 색다른 여운을 안겨 주었다.

**한없이 깨끗한 자연 속 산길을 걷다**

‘발우 공양’으로 가벼운 아침 식사 이후에는 본격적인 트레킹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소사에서 자동차로 15분 이동하여 실상사 입구에서 시작해 직소폭포, 제백이고개, 전나무 숲을 지나 다시 내소사로 돌아오는 코스로 3시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는 산행길로 작은 산 하나를 넘어 오는 코스였다. 작은 산을 넘는다고는 하나 그리 험하거나 경사가 있는 코스가 아니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산길을 지날 수 있었다. 인접한 부안군과도 날씨가 완전히 차이 난다는 능가산 산

길은 확연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공기가 맑고 깨끗했다.

안타깝게도 트레킹 코스 중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는 직소폭포는 가뭄으로 인해 볼 수 없었지만 살아숨쉬는 숲에서 오감으로 전해지는 상쾌함만큼은 최고였다. 산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는 멀리 변산반도국립공원 바다의 절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다시 내소사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번 트레킹 코스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오디 농장 체험이 이어졌다. 내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오디밭으로, 이제 끝물에 이른 오디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다. 모두들 한참을 오디밭에서 나오지 않다가 결국 다음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되어야 입과 손을 보라색으로 물들인 채로 나타났다.

**오직 자신만을 되돌아보며, 다시 일상으로**

트레킹 프로그램이 끝나고서 모두 땀에 젖은 몸을 깨끗이 씻고 원래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단지 하루 만에 자신의 옷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다.

이어 이번 템플스테이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며,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던 하루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기간이나마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일반인 참가자들 과도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내소사를 내려와 속세(?)로 향했다. 그 동안 가진 수많은 회식 자리 보다 더 짙은 여운으로 남은 이번 체험을 통해 전주공장 생산팀은 얼마나 채우고 또 비우고 일상으로 돌아갔을는지 가능할 수 없다.

사찰소개가 끝나고 사찰 내 공양간에서 오신 채(다섯 가지 매운 양념인 마늘, 부추, 달래, 파, 양파)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 식사 이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내소사에 자리한 범종, 법고(큰북), 목어, 운판 등 네 가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악기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중 큰 종인 범종을 직접 타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새해 보신각 타종 같은 때에만 보던 것을 직접 쳐보는 감회는 감동 이상의 울림을 전해 받을 수 있었다.

저녁 예불 이후에는 다도 시간을 통해 전통차를 마시고 서로 불교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일상에 고민을 주고 받는 ‘스님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향기로운 차의 향기와 진솔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산사의 새벽, 고요함 속에서 비우고 채우다**

‘스님과의 대화’ 시간이 끝나고선 남녀 방을 구별하고 취침 자리를 마련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평소 같은면 토요일 밤이라 늦게까지 잠들지 않을 터였지만 아무런 일정도, 방해도 없는 산사에서의 밤은 금방 깊어져 모두를 이룬 잠자리에 들게 했다.

이튿날 새벽 4시. 조용한 인기척만으로 모두 기상하여 간단한 세면 이후 새벽 예불에 참여했다. 전날에 처음으로 배운 불교식 절하는 방법과 인쇄물로 나눠준 불교 경전을 보며 따라 낭독하며 예불을 진행했다. 모두들 낯선 종교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쾌감 보다는 새벽에 가지는 맑은 정신을 가진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어 108배 참회 기도가 진행 되었는데, ‘행복을 찾는 108배’라는 CD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음악과 음성에 따라 ‘108배’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몇 번 절을 했나를 헤아리기 바쁘다가 나중에는 몸이 힘든 나머지 ‘무아지경’에 이를 때쯤 108배 시간이 끝이 났다. 108배 참회 기도가 끝나고선 스님들의 식사 예법을 체험해 보는 ‘발우공양’이 이어졌다. ‘발우’라는 나무로 된 그릇에 자신이 먹을 만큼

**Interview +one**

전주공장 열처리생산팀 곽문석 주임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내소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 듣고, 직접 타종을 해보는 등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교의 예절과 정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짧은 금역을 통해 내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신선한 공기와 맑은 정신을 담아서 올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체험을 계기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사회인이 되겠습니다.



살아숨쉬는 숲에서 오감으로 전해지는 상쾌함만큼은 최고였다. 산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는 멀리 변산반도국립공원 바다의 절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능가산 내소사 템플스테이  
문의 063-583-3035 | www.naesosa.org

오이소! 보이소!

# 세플러의 두 남녀가 전하는 부산 이바구

(\*이바구 : '이야기'의 부산 사투리)



**COUPLE**

박한별 사원  
남부직남영업팀

조민정 연구원  
연구소 제품기술팀

## 부산으로 또 한 번 뛰어드는 두 세플러인

오늘 부산 여행을 위해 세플러의 두 남녀 남부직남영업팀의 박한별 사원과 연구소 제품기술팀 조민정 연구원이 부산역 앞에서 만났다. 두 세플러인이 소속된 팀은 세플러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끝과 끝에 속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품기술팀에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해내면 직남영업팀을 통해 고객사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직남영업팀이 수렴하여 제품기술팀에 전달하고, 그 요청을 토대로 제품기술팀에서 제품 개발에 착수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플러라는 이름과,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루트를 통해 이어지는 두 세플러인이지만 그들이 또 한 번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우선 박한별 사원은 '부산 싸나이'. 부산 토박이인 그가 사는 곳은 더군다나 여름철 물 반 사람 반이 된다는 인기 해수욕장, 해운대 앞이다. 조민정 연구원은 전라도 광주 출신이지만,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부산에서 4년을 보냈다. 오늘의 여행지 '부산'으로 또 한 번 뛴이는 것. 이렇듯 부산이라는 지역에 애착이 깊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오늘 세플러인들에게 부산의 진짜 멋과 맛을 소개해주겠다.

## 아름다운 동백섬에서 시작한 부산 여행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가왕(歌王)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에도 언급되는 동백섬이 오늘 세플러 커플의 첫 방문지다. 예전에는 독립된 섬이었으나 오랜 세월이 걸친 퇴적작용으로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동백섬은 이름 그대로 봄이면 붉은 동백꽃으로 뒤덮이는 아름다운 섬. 비록 철이 지나 동백꽃은 피어있지 않았지만, 푸른 자연 사이로 마련된 산책길은 여행객들에게 여름 특유의 매력을 어필한다. 세플러 커플도 두 손 꼭 잡고 산책길을 거닐어 본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지나 조금만 더 걸으면 작은 등대처럼 생긴 바다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맑은 날이면 멀리 오륙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볼 수 있단다. “물론 대마도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인간의 시력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뜨거운 햇살과 짙은 바다 내음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여름! 무더위가 외출을 꺼리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계절이다. 세플러 커플이 대한민국 대표 여름 휴양지인 부산의 멋과 맛을 찾아 떠났다. 부산의 관광명소 곳곳을 돌아다닌 세플러 커플의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자.



01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첫 소절 가사로 유명한 '동백섬' 입구  
02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자리 잡은 '광안대교'가 두 사람 뒤로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03



05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박한별 사원과 조민정 연구원도 신발을 벗어두고 푸른 바다로 뛰어들다. “시원한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밀려드는 것을 느끼니, 이제 정말 여름이 왔구나 싶어요!” 바닷물 첨병거리며 한참을 아이처럼 놀던 조민정 연구원의 말에 박한별 사원도 고개를 끄덕인다. ‘동네 주민’이라 익숙한 해운대 해수욕장이지만 이렇게 조민정 연구원과 함께 여름바다를 즐기고 있자니 색다른 느낌이 든다.

#### 남포동 국제시장

부산의 멋을 실컷 즐겼으니 이제 부산의 맛을 느껴봐야 한다며 두 세플러인이 향한 곳은 남포동에 위치한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강동시장과 구제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강동시장에서는 일반 마트에서는 살 수 없는 수입품을 접할 수 있다. 조금만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나오는 구제시장은 패셔니스트들

이 목욕탕 의자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옷더미에서 개성이 살아있는 구제 옷을 고르고 있는 이색 광경이 연출되는 곳.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국제시장은 부산의 먹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씨앗호떡, 비빔당면, 부산어묵, 물오뎡, 총무김밥 등 부산 맛으로 가득한 이곳에는 어딜 가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지만, 우리의 두 남녀, 잠시 기다리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숨은 맛집으로 조민정 연구원을 안내하는 박한별 사원. 입안 가득 부산을 맛보는 두 세플러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짓는다.

회사 밖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 관계에 휴대폰이 계속 울려 대화가 끊이곤 했지만, 세플러 커플이 화기애애하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아예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일도 여행도 화끈하게 즐기는 세플러인 여러분! 올 여름에는 멋과 맛이 살아있는 부산으로 오이소~”



04

맑은 날 보이는 그 섬은 신기루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박한별 사원의 설명에 눈이 동그해진 조민정 연구원. 내친김에 박한별 사원은 조민정 연구원을 전망대 망원경으로 안내하며 부산 곳곳을 직접 보여주며 소개한다. “사실 대학생 때 학교 근처를 잘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부산 토박이에게 직접 가이드를 받으니까 이제야 부산의 참모습을 알 것 같아요!”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마음이 들뜬 조민정 연구원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 부산 바다에서 만드는 ‘시원한’ 추억

산책길을 따라 동백섬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웨스턴조선호텔이 보인다. 이곳은 세플러 커플의 다음 여행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이 시작되는 곳. 일찍 찾아온 더위에 조기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파라솔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 새우깡 한 봉지로 갈매기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 손잡고 해안가를 산책하는 연인들... 펼쳐진 백사장 앞 넘실대는 파도를 그냥

광안대교가 있는 풍경이 흰하바라다 보이는 카페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다.

- 03 시원한 파도와 새하얀 모래사장으로 세계적 관광지가 된 해운대 해수욕장
- 04 부산 명물로 자리잡은 먹거리인 비빔당면과 씨앗호떡
- 05 부산의 해안가를 따라 산책로로 만들어진 ‘갈매길’
- 06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한눈에 펼쳐지는 카페



06



##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으로 성장하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연구소 제품기술팀 이강현 연구원과 그의 부모님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한결 같다. 자녀의 건강한 모습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더는 바랄 것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소 제품기술팀의 이강현 연구원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뉘을 다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 안정된 직장,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조금 이른 더위가 찾아온 6월의 끝자락. 이강현 연구원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다. 회사를 찾아오는 그 어떤 방문객 보다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부모님의 회사 방문이었다. 올해 2월 입사해 갓 신입사원의 모습을 벗어가고 있는 이강현 연구원은 연구소 제품기술팀 막내로 한참 업무를 익혀 가는 중이다. 현재 프로젝트 매니저먼트를 맡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제품을 제작부터 양산까지 총괄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뛰어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며 신입사원으로서의 각오를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당찬 모습이 역력하다.

### 나의 회사, 세플러코리아를 부모님께 소개합니다

오후 5시. 드디어 기다리던 부모님이 그의 일터인 창원 연구소에 도착했다. 원래 부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입사를 계기로 부모님과 떨어져 창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몸소 부모님이 그가 있는 창원에까지 오지게 된 터였다. 대학교에서 기계자동차공학을 전공한 이강현 연구원은 전공을 살려 우리회사에 입사해 그나마 기술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 편이지만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 생산하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내용과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기업의 과거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하는 태도는 진지하다 못해 진정한 세플러인이었다.

### 부모님 가르침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

우선 연구소 로비에 마련된 쇼룸에서 부모님에게 회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베어링이란 무엇이고, 세플러코리아는 어떤 회사이고, 본인 맡은 일은 무엇인지를 하나 하나 설명하다 보니 이야기가 점점 깊어진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들의 말 하나 손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강현 연구원이 일하고 있는 자리를 찾아 같이 일하는 이들을 소개했다. 부모님은 소개 받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빼먹지 않는다. 자신이 일하는 자리를 지나 연구소 내 여러 부서와 설비들을 소개하면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요모조모 설명하는데 여념이 없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아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다시 한 번 아들에게서 든든함을 느낀다. 그렇게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나서는 함께 문밖으로 나와 연구소 바깥을 크게 한 바퀴 둘러본다. 사실 짧은 시간에 아들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또 열심히 모습이 부모님은 그저 대견할 따름이다.

### 앞으로 더 믿음직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회사를 모두 둘러보고 나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이강현 연구원은 모처럼 자신의 일터로 찾아온 부모님에게 좋은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그가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곳은 ‘금화’라는 중화요리전문점이었다. 이곳은 그가 신입사원이 되고 직장의 선배들과 찾은 회식 장소로 그에게는 또다른 의미로 기억이 될 만한 장소였다. 부모님의 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다른 가족으로 지내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찾게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식사를 주문하고 고급술도 한 병 같이 주문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회사 유니폼을 입은 직장인의 모습으로 처음 잔을 따랐다. 앞으로 더 믿음직한 아들이 되겠다는, 그리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하며 부모님께 따르는 술이었다.

## Interview +one

연구소 제품기술팀 이강현 연구원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다니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자체가 엄청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을 직접 부모님께 보여드리니 설레고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일이 닳도록 말해도 부족하겠지만, 낱아 주시고 길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세플러를 소개하는  
듬직한 아들의 모습에  
손짓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는 모습이다.

# 세플러인들에게 묻는다! 여름철 발발하는 뱃살과의 '전쟁'

노출의 계절, 여름! 남성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얇은 옷 때문에 당신의 두툼한 뱃살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배를 가려주던 니트, 코트, 재킷, 점퍼는 당분간 없다. 그리하여 발발하는 뱃살과의 '전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세플러인에게 묻는다.

설문대상 : 세플러코리아 전직원  
설문기간 : 2014년 6월 9일 ~ 6월 23일  
총 응답자수 : 155명



## 01

뱃살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상황은?

- ① 주변 사람들이 대놓고 내 뱃살을 놀릴 때 (8%)
- ②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태가 안날 때 **50%**
- ③ 다른 사람의 몸매와 비교되어 위축될 때 (12%)
- ④ 뱃살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뉴스를 볼 때 (14%)
- ⑤ 날씬했던 과거의 내 사진을 볼 때 (15%)

이비만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그의 두툼한 뱃살을 놀려도 '뱃살은 인덕'이라며 웃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 그러다 자신의 생일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선물해준 멋진 셔츠를 입어 보곤 충격에 휩싸인 이비만 씨.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단추와 광고모델과는 다른 맵시를 자랑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뱃살 빼기를 결심하게 되었다.



## 02

뱃살과의 전쟁,  
어떤 전술을  
쓸 것인가?

- ① 뒤편일키기, 팔굽혀펴기 등 집에서 맨손운동 (21%)
- ②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헬스장 다니기 (30%)
- ③ 도와줘요! 다이어트 보조제! (1%)
- ④ **살은 덜 먹어야 빠진다! 식단 조절 35%**
- ⑤ 술만 끊어도 충분해~ 회식 자제와 금주 (14%)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준다. 한 친구는 좋은 헬스장을 추천해줬고, 한 친구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 지방 분해에 효과가 볼 수 있다고 귀뜸해줬다. 하지만 저녁밥상에서 밥이 반만 든 밥공기를 내미는 아내의 한마디가 가장 강력하다. "적게 먹고 채소 많이 먹기! 그럼 빠지요~"



## 03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 ① 애들이 자꾸 조르니까... 가족 외식 (1%)
- ②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엉덩이! 귀차니즘 (17%)
- ③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어~ 식탐 (21%)
- ④ 입이 심심한 걸 어떡해? 군것질 (21%)
- ⑤ **사회생활 하는 데 빠질 수가 없으니... 회식 39%**

아내의 말대로 반찬에서 채소의 비중을 늘리고 저녁밥의 양을 줄이며 다이어트를 잘 이어가고 있는 이비만 씨. 워낙 복부비만이 심했던 탓인지 식단조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하지만, 열흘 만에 가장 큰 시련이 닥쳤다. 불금 오후 부장님의 한마디. "다들 저녁에 뭐해? 간만에 회식 한번 하자! 내가 삼겹살 쏜다!"



## 05

다이어트 중  
가장 참기 힘든  
음식은?

- ① 뿌리치기 힘든 간편함, 패스트푸드 (10%)
- ② 무더운 여름밤 더욱 생각나는 차맥 (34%)
- ③ **딱 한잔만 하려고 했는데... 술 37%**
- ④ 바쁜 점심시간 제일 만만한 짜장면, 짬뽕 (2%)
- ⑤ 탄수화물 중독이 문제라던데... 밥과 빵 (17%)

오늘따라 삼겹살은 냄새도 좋다. 불판 위에서 고기 기름을 튀겨가며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간다. 상추와 마늘 위주로 쌈을 싸 먹으며 일부러 배를 불러 삼겹살은 자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비만 씨는 술을 참기가 더 힘들다. "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면 낮에 쌓인 피로가 싹 풀릴 텐데...!"



## 04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사람은?

- ① **술 한 잔의 유혹... 친구들, 직장 동료 52%**
- ② 고기를 식탁에 안올릴 수가 없다! 아이들 (1%)
- ③ 빛나는 요리 솜씨도 이럴 땐 괴로워 아내 (3%)
- ④ 텔레비전 속 먹방 연예인들 (3%)
- ⑤ 다이어트에선 의지박약, 나 자신 (41%)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는가? 회식자리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끌려나온 이비만 씨는 회식을 제한한 부장님보다도 주변에 앉은 직장동료들이 더 밉다. "이비만 씨는 다이어트 중이라 안 마실 거지?" "그래도 딱 한잔만 해~" 놀리는 듯 이비만 씨 앞에서 술잔을 주고받는 직장 동료들이 오늘따라 알뜰게만 보인다.



## 06

뱃살 빼기에  
성공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은?

- ① 뱃살만 살이내! 나머지 군살을 위해 다이어트 지속 (15%)
- ② 그동안 입고 싶었던 스타일로 옷 한 벌 뽑기 (18%)
- ③ 당당히 옷통 벗고 워터파크, 해변으로 떠나기 (26%)
- ④ **이번 기회에 몸짱에 도전한다! 근육 만들기 35%**
- ⑤ 목표 달성한 나에게 보상을~ 그동안 참았던 음식 먹기 (6%)

그래도 이비만 씨는 굳은 의지로 술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 성공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아내의 찬사가 쏟아진다. "역시 우리 남편! 내가 당신 의지에 반했다니까~" 아내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이비만 씨, 내친김에 몸짱 도전도 선언한다. "올 여름, 반드시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소!"

# 액션(?)을 통해 영웅들과 조우하다

서울사무소 생일자를 위한 생일 선물

“잊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한때 서울시청 구청사에 크게 써 붙여져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불러 넣어줬던 문구이다. 스스로를 평범한 직장인으로만 생각하는가? 당신도 자녀의, 아내의, 동생의, 친구의, 후배의, 직장동료의 작은 영웅일 수 있다. 세플러 내 작은 영웅들 중 생일을 맞은 다섯 명이, 그림과 액션을 통해 유명한 영웅들과 조우할 수 있는 <페인터즈 히어로>를 관람했다.



스스로를 평범한 직장인으로만 생각하는가? 당신도 자녀의, 아내의, 동생의, 친구의, 후배의, 직장동료의 작은 영웅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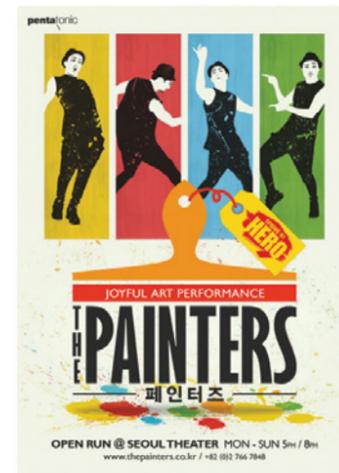
(앞줄) Business 기획팀 김형덕 차장(6월 15일)  
(뒷줄 왼쪽부터) 정보시스템팀 정승균 사원(5월 23일), 글로벌영업팀 송형철 대리(7월 27일), 소비재산업센터 한재용 사원(5월 5일), 구매팀 손형호 사원(6월 5일).

## 서울극장에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

서울극장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오래된 극장이다. 종묘, 청계천, 인사동, 창덕궁, 창경궁 등 서울의 요지들과 근접한 종로에 자리 잡아 1978년부터 서울의 역사를 다 지켜보았던 곳.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설이 노후 되진 않았을까 걱정하기 쉽지만, 현재는 12개의 상영관에 세련된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엄연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하지만 서울극장에서 영화만 상영될 것이라는 선부른 판단은 금물! 서울극장은 다른 멀티플렉스 영화관보다 특별하다. 서울극장 5층에는 마치 색색의 페인트 통 속에 풍당 빠진 듯 선명한 색상과 익살스러운 표정의 배우들 사진으로 장식된 <페인터즈 히어로> 전용관이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에, 다섯 명의 세플러인들이 <페인터즈 히어로> 관람을 위해 방문했다.

## 영웅들을 그림으로 재탄생시키다

<페인터즈 히어로>는 장르가 뮤지컬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타 다른 공연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영웅'을 주제로 기획된 미술 퍼포먼스, '드로잉 쇼'인 것. 3D 미디어아트, 창의 미술기법, 코믹 액션, 기발한 연출력이 어우러져 화려하고도 신선한 볼거리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라이트 스크래칭, 액션 페인팅, 터스트 드로잉, 큐브아트, 마블링 등의 기법을 사용한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 화폭 위에 마이클잭슨, 이소룡, 슈퍼맨 등 세계 각국의 영웅들이 재탄생되는 장면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특별한 공연이기에, <페인터즈 히어로> 전용관은 내국인 관람객 말고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페인터즈 히어로>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적인다. 뿐만 아니라 <페인터즈 히어로>는 일본 도쿄에서 해외 공연까지



마치고 온 바 있는 글로벌한 공연이니,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맞은 다섯 생일자들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공연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 생일을 챙겨주고 함께 한다는 것

다섯 생일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다보니 친구들과 공연을 보는 일도 드물고, 보게 되더라도 영화나 연극, 뮤지컬 정도였지 드로잉 쇼 같은 색다른 공연은 어쩌다 이벤트에 당첨되었을 때 외에는 보러갈 일이 별로 없었던다. 그래서일까? 생일을 맞아 직장동료들과 공연을, 그것도 색다른 쇼를 보러 왔다는 것이 마냥 설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다섯 남자들의 수다는 왁자지껄 끊이지 않았다. "팀마다 생일자를 축하해주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팀원들이 돈을 모아 생일자에게 와인과 케이크를 선물하는 팀도 있고, 그냥 각별히 친한 동료들끼리 회식자리를 갖는 팀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모두 모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생일을 축하해주는데, 함께 공연을 보러 나올 기회는 여태껏 없었죠." 송형철 대리의 말에

Interview +one

서울사무소 구매팀 손형호 사원

결혼 전과는 다르게 올해 생일은 차가택에서 챙겨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냈던 시절에는 생일을 그냥 외롭게 지나친 적도 있었거든요. 역시 생일은 여러 사람과 함께 보내야 더욱 즐거운 것 같아요. 세플러인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생일을 혼자 조용히 보내지 마시고, 공유하고 모두에게 축하받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섯 생일자들 모두 자신도 직장동료와 공연을 보러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맞장구쳤다. 정승균 사원 역시 생애 첫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생일까지 챙겨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생일을 여럿이 함께 어울려 보낸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요. 회사에서 생일을 챙겨주고, 직장동료 분들과 함께 공연도 즐기게 되니 더없이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페인터즈 히어로>를 관람하러

모인 다섯 세플러인은 같은 서울사무소에 있지만 부서가 모두 다르다. 그렇다보니 함께 공연을 보기 위해 따로 만나기는커녕 사무실 내에서 인사만 하는 정도의 친분만 있었다. 하지만 '세플러'라는 이름 아래 금방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다. 화려한 액션과 함께 캔버스에 세기의 영웅들을 그려내는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영웅 하나를 함께 आरो새겨놓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페인터즈 히어로>는 일본 도쿄에서 해외 공연까지 마치고 온 바 있는 글로벌한 공연이니,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맞은 다섯 생일자들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공연이 아닐 수 없다.



이 한장의 그림 For Life

●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림



전종호 작 / Line 5 / Inkjet Print / 2013

푸른 계열의 색과 선, 면들이 교차하면서 구성적인 패턴을 빚어낸다. 이런 색과 선은 풍요로운 느낌을 주어 더위로 인해 치솟은 불쾌지수를 가라앉힌다. 비에 촉촉해진 까만 흙과 녹색의 밀밭,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와 언덕과 언덕이 만나는 부분의 선과 색과 면이 보는 이를 평화로움으로 이끌어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 집 나가면 고생은 옛말, 내 집만큼 편안한 여름 캠핑

서울사무소 경영지원팀 이종우 차장 가족

육아 예능이 인기를 모으면서부터 아빠들은 피곤해졌다. 평일에는 물론 주말에도 아이들과 참신한 방법으로 놀아주며 아빠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캠핑은 손쉽게 할 수 있어야만 진짜 '슈퍼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텐트를 치는 일이 집하나 짓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글램핑'이다.

서로 보탬이 되며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저녁식사는 꿀맛이 따로 없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아빠 옆에 앉아 듣는 착한 아들 성민



## 캠핑 초보 아빠가 슈퍼맨이 되기 위한 선택

글램핑(glamping)이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빠라고 해서 모두 '캠핑 박사'는 아니다. 일단 요즘 캠핑은 장비를 갖추는 것부터 일이다. 꼼꼼히 살펴보면 가격, 품질 등도 문제지만 도대체 어떤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부터가 난제다. 집안의 살림살이는 가전제품을 빼고는 모두 필요할 것만 같은 캠핑 초보 아빠들에게 맞춤형인 것이 요즘 유행하는 '글램핑'이다.

그래서 평소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해 가족 여행은 자주 다니지만 아직 캠핑에는 서툴다는 서울사무소 경영지원팀 이종우 차장 가족이 글램핑 체험에 나섰다.

## 캠핑장비와의 싸움은 절반, 캠핑의 낭만은 두 배. 글램핑

이번 글램핑 체험을 위해 이종우 차장 가족은 서울 인근 가평에 위치한 '가들기 글램핑장'을 찾았다. '가들기 글램핑장'은 경기도 가평 계곡에 인접해 자리하고 있어 여름 캠핑

즐거기에 적합하다. 일단 캠핑을 하기 적합한 장소에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텐트가 완벽한 형태로 지어져 있다. 그리고 텐트 안에는 한 가족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잠자리와 휴식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각종 캠핑 도구에서부터 전기콘센트가 연결되어 있어 간단한 냉온, 냉난방도 가능하다. 이쯤되면 요즘 모 광고에서처럼 '남들은 고기 굽는데, 아빠는 두 시간째 텐트를 치다 아이로부터 괜히 왔다는 핀잔을 듣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듯하다. 여기에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바비큐 숯불과 작은 캠프파이어를 즐길 수 있는 모닥불도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아빠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캠핑 요리의 경우도 미리 주문하면 바비큐용 돼지고기, 소시지 등과 라면, 즉석밥, 각종 채소에 소금, 후추 등 기본양념 세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준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캠핑 준비는 끝. 이제 가족들과 캠핑의 낭만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 계곡 물에 발 담그고 물장구 치고, 친구 같은 아빠되기

캠핑장에서 계단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가니 계곡이라기보다는 넓은 냇가가 나왔다. 물의 깊이도 그리 깊지 않고 물의 온도도 그리



01

조금 서투르고 조금 부족하면 어떠랴.  
꼭 슈퍼맨 같은 아빠가 아니라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들 가족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02



04

- 01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11년째 친구같은 부부로 서로 의지하며 지낸다는 이종우 차장 부부
- 02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애교 많고 귀여운 딸 윤하
- 03 송사리가 지나다니는 냇가는 자연학습장이 된다.
- 04 물수제비 뜨는 다정한 아빠와 아들



03

차지 않아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에 나섰다. 열 살 된 아들 성빈이와 아빠는 물속으로 침범 들어가 아빠가 가르쳐주는 물수제비 뜨기에 한창 열을 올린다. 아내 황보영 씨와 다섯 살 배기 딸 윤하는 슬며시 물가로 와서는 조심스레 냇가에 발을 담가보다 물장구를 친다. 가족이 함께 냇가에 지나는 송사리도 살펴보고 서로 물을 튀기며 물장난도 친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는 별다른 장난감 없이도 아빠, 엄마와 아이들이 금세 친구가 된다.

이종우 차장은 평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주로 국내에서는 콘도, 해외여행에서는 호텔을 이용했는데, 그런 곳에서 얻지 못했던 발가숭이 자연 그 자체의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작년에 처음 글램핑을 다녀본 이후 다른 여행보다 캠핑이 더욱 맘에 든다고 한다.

**천생연분 아내를 만나 사랑으로 뽕뽕 뭉친 가족이 되다**

물놀이를 마치고 지친 아이들을 잠시 쉬게 놔두고선 부부가 모처럼 만에 오붓한 산책길에 나섰다. 두 사람은 22년전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만나 OT 때부터 캠퍼스커플이 된 동갑내기, 친구처럼 편하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힘든 시간을

함께한 사이다. 3년간의 힘든 고시촌 생활도 함께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여 11년째 때론 연인처럼 때론 친구처럼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아들 성빈이는 유치원 시절에는 몇 편의 CF와 영화에도 아역 연기자로 출연할 만큼 잘생긴 외모에다가 영어 등 언어에 남다른 소질을 보이며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고, 올해 유치원에 들어간 딸 윤하는 애교도 많고 남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 끼가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다. 그리고 아빠 이종우 차장은 가족들과 늘 친구처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여름밤의 낭만을 느끼며 가족을 가슴에 품다**

어느 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캠핑장에 어둠이 찾아 들면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하여 아빠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요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바쁜 회사 업무로 인해 가족들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 줄 기회가 적었는데, 이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점수를 따볼 요량이다.

바비큐 불판에 고기 굽고, 찌개도 끓이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바쁘기만 할 뿐 영진도가 나가지 않자 아내가 도움을 손길을 보낸다. 이런 엄마를 돕겠다고 딸 윤하도 엄마 옆에서 손을 거든다. 이에 질세라 아들 성빈이도 바비큐 불판 앞에서 매캐한 연기와 싸우며 아빠를 돕고 나섰다. 믿음직한 아빠만큼이나 든든한 가족이다. 결국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저녁식사 자리. 선선한 계곡의 밤바람을 맞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 듬뿍 더해진 음식을 함께 나눈다.

조금 서투르고 조금 부족하면 어떠랴. 꼭 슈퍼맨 같은 아빠가 아니라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들 가족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평 가들기 글램핑장  
문의 1644-7140 | gadulgi.moaglamping.com

# 신나는 음악과 함께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우승해, 노성기 사원의 스피닝 체험기

몸짱 열풍이 대세다. 비단 여름철 물놀이에서 자랑하고픈 몸매를 얻기 위한 일시적 열풍이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만은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보니,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기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각종 운동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신상(?) 운동법이 있으니, 바로 '스피닝(spinning)'이다.



## 사이클과 피트니스의 환상적 결합, 스피닝(spinning)

마냥 자전거를 타는 것을 스피닝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리면서 하는 운동이라는 뜻에서 '스피닝(spinning · 바퀴를 돌리는)'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운동법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스피닝(고정식 자전거)을 이용하여 신나는 음악에 맞춰 상체는 상, 하, 좌, 우, 웨이브 등으로 움직여주고, 하체는 안장에 앉거나 일어난 자세로 변형을 주어 팔, 다리, 복부, 허리, 힌 등 여러 부위의 운동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 하체 근력에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체지방 감량에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보편화 된 스피닝 방식은 'GX 프로그램(Performance spinning program)'으로 사이클링, 음악, 신체 동작이 특징이다. 음악 선곡이 자유롭고 강사에 따라 프로그램의 강도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상·하체를 자유롭게 트레이닝 할 수 있어서 초보자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워낙 강도가 높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이라 1시간에 600Kcal~800Kcal 이상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런닝머신보다 3~4배 정도 많은 칼로리 소모량이다.

## 건강을 위해 흘리는 땀에서 젊음의 특권을 찾는다

이처럼 낯설고도 힘든 운동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바로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우승해, 노성기 사원이다. 두 사람 모두 작년에 입사해 아직 만 일 년이 되지 않은 새내기 세플러인으로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우승해 사원은 대학교 때부터 입사할 때까지 취업준비로 인해 운동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최근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스피닝에도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에도 헬스, 수영, 마라톤 등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이클(로드바이크)을 즐겨 하고 있어 스피닝에도 부담감이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참가자인 노성기 사원은 작년 여름에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완주해서 자전거 타는 것만큼은 자신 있기에 도전하였다. 최근에는 수영을 배우고 있고, 간간히 헬스장에서도 운동을 하며 건강한 몸만들기 열중이라고. 두 사람 모두 자전거 타기에 익숙하고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는 이들이라고 하니 이번 체험이 더욱 기대가 되었다.



## 열정은 끊임없이 흐른 땀방울과 거친 호흡을 남기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시작된 스피닝 체험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스피닝의 운동량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운동 시작 전에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같이 입고 웃음 띤 얼굴로 스피닝바이크에 앉은 두 사람은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막상 운동이 시작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자취를 감췄다. 운동을 지도하는 강사는 이들이 초보임을 감안하고 운동의 강도를 조절했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는 운동이라 특별히 휴식을 주거나 하는 특혜는 없었다. 우선 자전거 안장 위에 앉고 서는 동작부터 상체를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을 배우고는 곧바로 다른 참가자들

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전면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크게 울리고, 앞에서 강사가 하는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며 운동을 진행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상체의 움직임과 오르막길에서 사이클을 타는 듯한 하체의 동작이 진행되다 보니 이내 땀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숨이 턱턱 막혀 거친 숨을 내쉬게 되었다. 그렇게 쉽 없이 움직이길 한 시간여.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방전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힘든 운동 뒤에 찾아오는 짜릿한 성취감을 경험해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다. 이번 체험이 비록 맛보기에 불과할 테지만 평소 운동을 즐기는 이들 두 사람에게겐 짜릿한 경험으로, 또 다른 운동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기억될 오늘이길 바라본다.

## Interview +one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우승해 사원

회사에 처음 입사하기 전 대학에서 공부만 하느라 자기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성적과 스펙, 좋은 직장은 얻었지만, 제 건강은 잃은 셈이었죠. 지금 현재 다시 마음잡고 운동한지 고작 2주차입니다. 회사 업무와 운동을 병행한 결과 약 10kg가 빠졌네요. 앞으로 20kg 더 감량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스피닝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헬스보다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고 있고, 체력소모가 많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뭐든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짐이기에 이번 기회에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면 꾸준히 해 볼 생각입니다.



# 실수가 알려준 문제 해결법

디자이너 매리 퀴트와 미니스커트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장발과 함께 경범죄 처벌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든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한 장 옷장에 들어있지 않은 여자가 없을 정도다. 이 미니스커트가 사실은 실수로 만들어진 옷이라면, 믿어지겠는가?

## 패션계의 혁명가,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는 극히 짧은 스커트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릎 위 10~20cm 길이의 것을 일컫는다. 이 미니스커트의 매력은 여성미, 젊음과 활동성의 어필에 있다. 디자인에 따라 하이힐과 함께 매치하면 섹시하고 관능적인 미를, 단화나 운동화와 함께 매치하면 상큼함과 발랄함을 풍기게 해주어 전 세계에서 두루 사랑받는다.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미니스커트를 가져와 패션 쇼에서 선보이면서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미니스커트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영국의 디자이너 매리 퀴트가 1966년에 발표한 것이 시작인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고 패션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붕괴되던 그 시기, 미니스커트는 의상의 혁명에 해당할 정도로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켰다.

## 새로운 스타일을 위한 매리 퀴트의 고민

1960년, 낡은 관습을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특징인 디자이너 매리 퀴트는 또다시 새로운 스타일의 여성복을 디자인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옷을 만들겠다는 일념 아래 수천 장의 디자인을 고안하고 실제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보았으나 대중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녀는 끝없는 연구와 분석 끝에 여성미의 본질에 대한

# Miniskirt



나름의 결론을 내놓았다. 여성미의 포인트는 예쁜 얼굴과 남성에게서는 볼 수 없는 곡선의 가슴, 엉덩이, 그리고 매끈한 각선미라는 것. 퀴트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을 해보려 밤낮을 고민했으나 잘 풀리지 않았다.

## 실수가 실마리를 주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불일이 생겨 외출 준비를 서두르던 퀴트는 실수로 문 경첩에 치맛자락을 집히고 말았다. 이를 미처 눈치 채지 못한 퀴트가 그대로 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녀의 긴 치마는 힘없이 죽 찢어져 그녀의 다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바쁘게다가 옷까지 버려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새 디자인에 대한 실마리가 스쳐지나갔다. 아찔하게 짧은 스커트로 늘씬한 다리와 엉덩이 곡선을 부각시키자는 것.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무릎 위 허벅지를 드러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면서도 대담한 것이었다.

## 실수가 만든 미니스커트, 성공하다

퀴트가 미니스커트를 발표하자, 처음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전통적인 시각을 가진 기성세대보다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던 1960년대이다 보니, 미니스커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업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중요부위만 겨우 가린 것 같은 이상한 옷이 나왔다고 불쾌해하던 '신사의 나라' 영국 정부마저도 그 위세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전 세계에서 급등하는 미니스커트를 인정, 결국 영국의 외화 획득이라는 면에서 공적을 인정해 매리 퀴트에게 제4 영국 훈장까지 수여했다. 실수가 아이디어를 주어 만든 미니스커트가 매리 퀴트라는 디자이너의 커리어에 큰 획을 긋게 된 것이다.

만약 퀴트에게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가 찾아왔다면 그냥 넘겨버리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온 상태였고, 결국 실수가 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읽어낼 수 있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실수도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면서 패션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붕괴되고 있던 그 시기, 미니스커트는 의상의 혁명에 해당할 정도로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켰다.



01 미니스커트의 창시자 매리 퀴트  
02 매리 퀴트와 모델들  
03 국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처음 유행시킨 윤복희

# 강원도 내린천을 소개합니다

가족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아마도 회사 동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함께여서 좋은 회사 동료들! 그들과 떠난 여행, 강원도 내린천 여행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가족과 가도, 동료와 가도 좋은 강원도 내린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2013년 6월초, 저희는 강원도 내린천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린천은 래프팅으로 유명하지만 래프팅 외에도 가족끼리 캠핑을 하기에 좋은 오토 캠핑장도 있고 각종 레포츠,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에 "딱~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숙소를 정한 곳은 거무석 펜션입니다. 펜션 뒤쪽의 하처리 계곡은 남쪽에 있는 점봉산에서 발원하여 닥박구미와 소물양골 물과 합쳐져 박수터를 지나 내린천으로 흐릅니다. "사방이 절경이다."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

다운 천연 보호림 속에 있어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계곡의 수심이 얕으며 물 바닥은 깨끗한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을 동반한 물놀이에도 적합할 듯합니다.

## 나이도 잊고 즐긴 계곡에서의 물놀이

거무석 펜션은 도로가에 있으며 큰방 2개에 작은방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아담하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펜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식사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점심에 닭볶음탕을 주문했었는데 사장님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신 줄을 놓고 먹는 바람에 관련 사진을 찍지 못했을 정도로요!



01

- 01 강원도 인제군을 굽이돌아 흐르는 내린천
- 02 가족만큼이나 서로 스스럼없이 지내는 직장동료들과의 여름휴가(맨위쪽 좌측 장대연 사원)
- 03 어린아이들 마냥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중년의 사나이들
- 04 삼삼오오 모여 족대로 계곡의 물고기 잡이에 여념이 없는 동료들



사방이 절경인 펜션 뒤쪽의 계곡에서 동료들과 함께 낚시도 하고 수영도 즐기면서 무더위를 날려 버렸어요.

거무석 펜션 앞을 흐르는 물길을 보면서 문득 영월 선암 마을의 한반도 지형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은 내린천 래프팅 시에 지나가는 코스여서 물살이 다소 셉니다. 주변을 보니 낚시들 많이 하시던데, 잡는 걸 많이 못 봐서 낚시하기에 적합한 곳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펜션 뒤쪽에 있는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넓은 웅덩이가 있어 수영하기에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수영하기에 더욱 적합한 큰 계곡도 있습니다. 그 곳에서 수영하다 추우면 모래찜질도 즐기며 한 시간 정도를 회사 동료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묵하던 50대 형님도 애들처럼 다이빙하면서 즐기시는 것을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대 아이처럼 즐기시더라고요~ 완전 부담스럽게~

## 또 하나의 즐거움, 족대 낚시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족대 낚시입니다. 사장님께서 족대를 무료로 대여해주세요. 낚시를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족대를 들고 있을 사람 1명, 그리고 위에서 물고기를 몰아올 사람 3명 정도로 조를 편성해 물고기를 잡으

면 재미있어요. 여기서 Tip 하나! 족대 잡이를 할 때 물고기를 못 잡으시면 족대 위치설정을 잘못해서 못 잡은 걸로 많이 혼납니다. 그러니 차라리 물고기 물이를 하세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물 반 고기 반입니다. 1시간 정도 족대 낚시를 했더니 한 통 가득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짜 물고기는 많은데 여기 고기는 사람의 느낌을 아는지 눈 먼 고기가 없더라고요. 물고기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

잡은 물고기는 펜션 사장님께서 부탁드려서 물고기 튀김을 해먹었습니다. 약간의 봉사료를 지급해드리니 저희가 잡은 물고기를 손질부터 튀김까지 완벽히 해주셨어요. 사장님은 센~스쟁이! 참고로 저녁에는 매운탕까지 해주셨습니다. 고기 파티에 매운탕에..... 안주가 정말 훌륭해서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동료들과의 1박2일 여행은 무사히 잘 마쳤고, 올 여름에도 저희는 이곳에 또 놀러갈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일을 할 때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러가서 만큼은 서로 양보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사 생활 또한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플러인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여행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는 지구 최대의 거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01

남미여행을 다녀온 지 벌써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워낙 매력이 넘치는 남미여행인지 여행 중에 느꼈던 색다른 느낌들과 순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특한 맛의 음식들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의 '자유'가 그리워서 그런지도 모르죠. 페루, 멕시코,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7개국을 여행했던 세 달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낮선 친구들과 찾은 소금사막의 비경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곳' 중 하나이며, '배낭여행자들의 가보고 싶은 지역 중 Best'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은 여행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소금사막의 면적은 무려 12,000km<sup>2</sup>(서울: 약600km<sup>2</sup>), 해발고도는 3650m. 지각변동으로 웅기한 바다가 빙하기를 거치고 2만여 년 전부터 녹기 시작하여 녹은 해수가 증발하면서 현재의 거대한 소금지형이 탄생했습니다. 우유니 투어는 당일치기 투어부터 2박3일 투어까지 가능하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또한 투어는 가이드 한 명과 차량 한 대, 그리고 차량에 맞는 인원이 맞춰져야 갈 수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사막을 제대

로 즐기기 위해 계획한 1박2일 투어. 우유니 시내를 몇 바퀴나 돌며 흥정한 결과 나의 예상비용과 비슷한 곳을 찾았고, 저렴한 비용 덕분에 다행히 우리는 동행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밖이 캄캄한 이른 새벽에 출발. 한 차에 탄 각기 다른 국적의 6명이 서로 어제까지 다녀온 여행지 소개와 여행 Tip,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3~4시간이 흘러 드디어 우유니 소금사막 입구에 도착했죠. 정말 사방이 하얀 소금으로 펼쳐져 있더군요. 그 광경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들고,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발밑에 있는 소금을 살짝 맛보니 우리나라 염분의 10배라는 말이 사실임을 실감할 만큼 정말 짜더라고요.

## 독특한 음식과 황홀한 일몰, 소금사막에서의 첫째 날

끝이 보이지 않는 소금사막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어부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는데, 우유니 투어를 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은 '고산병'이에요. 가이드가 준비해 준 '코카잎' 덕분에 우리 멤버들의 증상은 미비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던가요? 현지 가이드가 음식을 준비해 주었는데 메인 메뉴는 '라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낙타와 비슷하게 생긴 라마의 맛은 질긴 소고기 맛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특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다시 사막을 달려 사막 한 가운데쯤 되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소금사막은 우기(1월~2월)에는 사막에 물이 차서 하늘이 반사되어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는 지구 최대의 거울'로 불린다고 합니다. 우기가 아닌 시기도 정말 멋졌어요. 한창 주위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이드가 포토타임이라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사진을 찍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우기일 때면 사막에 물이 차서 하늘이 반사되어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는 지구 최대의 거울'로 불린단다.



02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 찍는다는 점프샷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다시 끝없는 사막을 달리는 동안 모두가 피곤함에 졸다 내리라는 가이드의 말에 차에서 내려보니 다시 한 번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사막에서 보는 일몰은 마치 TV에서 소개되는 '오로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이 끝나고, 우리는 사막 한 중간에 위치한 숙소로 도착했는데 숙소는 소금과 벽돌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날 저녁 4개 팀(각 팀당 5~6명)이 모여 함께 한 소박한 파티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그곳에서 친구와 나는 한국의 홍보대사인 마냥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었고, 전 대륙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 하루도 추억이 아닌 날이 없었던 여행

둘째 날 출발한 시각은 새벽 4시. 전기도 없고 캄캄한 사막을 달리다 도착한 곳에서는 땅에서 마구 솟아오르는 증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 일찍에만 이렇게 증기가 솟아 나온대네요. 이것을 보기 위해 그 새벽에 출발한 것이었죠. 장엄하게 멋진 풍경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색적이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어느덧 소금으로 이루어진 사막은 사라지고, 날이 밝아 도착한 곳은 국립공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위산은 실제 화산활동이 이루어지는 화산이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라밍고와 선인장이 실제 사막을 보는 듯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실제 라마도 발견했답니다. 어제의 점심메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귀여웠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으로 그곳에서 한 온천욕은 정말 어느 온천에서 즐긴 온천욕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새파란 하늘과 유독 가까워 보이는 구름, 흰색의 구분이 없었던 옛날에 흰 빛깔의 기준이었을 만큼 흰 소금으로 된 사막! 나의 소중한 친구와 그 곳에서 친구가 된 우리! 우기시즌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1박2일은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동 그 자체였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나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의 20대 목표 중 하나인 남미여행을 꿈꾸게 만들었던 곳,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여행의 기억들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에너지가 된답니다. 배낭여행 혹은 남미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저의 이런 추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03

01 새하얀 소금사막을 배경으로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는 김종민 사원(우측에서 두번째)  
02 갖가지 절묘한 포즈로 추억을 남기는 소금사막에서의 포토타임  
03 서로 다른 국적의 여섯 명이 함께 모여 한 차를 타고 이동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친구가 됐다. (좌측 중간, 김종민 사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비용 부담에 허덕이는 가구를 '하우스 푸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전세금이 급등하는 바람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 빚에 허덕이는 '렌트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사실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엔 전세보증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 여기저기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한 뒤 이자와 원금을 갚는 기간 동안에 소비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하우스 푸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한다.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문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이 있느냐가 아니다. 결국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볼때 얼마나 많이 대출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이자 상환 부담이 20% 넘어서면서 고통 받는 하우스 푸어는 2012년 306만 가구에서 지난해 328만가구로 약 7.3% 증가했다. 이들 하우스 푸어들 가운데 43%는 주택담보대출만으로 부족해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맞물려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악순환 고리에 빠진 하우스 푸어가 이를 벗어나려면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할까. 우선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한다. 집값이 반등하기만을 기다리며

신용대출 등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며 이자부담을 단계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다. 집값이 반등한다 해도 늘어난 빚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우스 푸어, 자력구제가 최선**

첫 번째 해답은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곳이나 새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집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지만 그렇다고 집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다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 무주택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 좋은 곳에 집을 사두서 몇 년 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서 도저히 팔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자기 집을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돌리고 본인은 주변 환경이 좀 더 열악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싼 곳으로 옮

겨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원금이 2억 5천만 원인 하우스 푸어인 경우에는 4억 원 초반 대에 자기 집을 전세로 돌리고, 본인은 2억 원 후반대 전세로 옮겨야 한다. 그 차액으로 대출 빚을 대부분 갚아 버린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돈을 다시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은행과 계속 협상을 해서 대출 금리를 최대한 깎아야 한다. 금리는 아는 만큼 깎을 수 있다.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다면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제란?**

만약 그럴 형편도 되지 않고 부채 상환 비율이 30%가 넘어 연체가 시작되고 있다면 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제도다. 실직, 휴폐업, 재산,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1~3개월 연체가 발생한 경

우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위원회 심사결과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 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거쳐 조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약 21만 1천여 명이 혜택을 누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종합상담센터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신용불량자 등 위기 상황에 내몰린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정부 대책**

다만 정부가 지난해 즐기치게 홍보했던 하우스 푸어 대책들은 대다수 '용두사미'격으로 전략하거나 소리 없이 폐지된 것은 유감이다. 우선 희망 임대주택 리츠 제도를 노려

보자.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월 1가구 1주택자인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 해당 주택을 5년간 임차하도록 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대책을 내놓았다. 매각 전 원리금 상환액이 월114만 원이어서 빚에 쪼들리는 하우스 푸어의 경우 리츠에 자기 집을 매각하고 월세를 55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여서 시범사업 1천 가구가 한 번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리츠에서 해당 주택 매각 시 우선 매입권이 주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3 대책을 통해 올해는 1천 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보며 추가 확대하고, 매입대상도 현행 85㎡ 이하 9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1차 사업 시행 공고조차 나지 않았다. 다만 올 하반기엔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바뀐 제도를 꼼꼼히 체크하라**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 푸어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캠코가 매입하고 집 지분 중 일부를 넘겨받는 '지분매각 제도'는 실적이 없어 폐지됐다. 집주인인 채무자는 캠코에 넘긴 지분에 대해 은행 대출이자 수준의 월세를 내고 살다가 지분을 되찾을 수 있다. 계속된 연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 계속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 채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다수라는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50살 이상, 부부 기준 6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총액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게 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쓰게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500명 이상이 가입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역시 지난 5월말로 종료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종합상담센터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신용불량자 등 위기 상황에 내몰린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 서울사무소 풍력섹터  
이지형 대리



## 결혼 1주년 기념 여행, 제대로 힐링하고 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다녀온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4km에 달하는 산호 모래로 된 화이트 비치의 비경과 함께한 보라카이에서의 6박. 오랜만에 긴 여행을 하면서 제대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공사 특가 찬스를 활용해 다녀오다 보니 여행기간이 보라카이의 우기에 겹쳐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줄 흘렀지만 아내와 함께해 좋은 추억으로 남은 여행입니다.

## ‘함께하는 사랑밭’과 일구는 행복한 마을 가꾸기

주민들의 마음에 희망의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 벽화 그리기로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요

‘행복한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는 수도권 재개발 해제지역에 기업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마을 구역별 테마를 설정하고 마을 벽화, 공원 보수, 화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활동은 다양한 이미지와 테마들로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벽화 봉사 활동. 이번 봉사에는 1기 단원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발된 2기 단원들까지 합세해 총 30여 명이 참가했다.

### 희망과 의지를 그려낸 대학생 봉사단

주민들이 70년대부터 생계수단으로 호박을 재배했던 탓에, 흥은1동(흥제 8주택 재개발 구역)은 ‘호박골’이라는 별칭 또한 가지고 있다. ‘EVERGREEN’ 봉사단원들은 흥은1동을 ‘행복한 호박마을’로 가꾸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오전 이른 시각부터 늦은 오후까지 얼굴과 옷에 페인트가 묻는 것도 모르고 벽화 봉사에 열중했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며 “삭막했던 마을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고 화사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의 활동으로 흥은1동에는 벽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수 놓였다. 이들이 이날 봉사활동으로 그려낸 것은, 어쩌면 단순한 벽화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불어넣는 희망과 의지였을 것이다.

01 벽화 봉사에 참여한 ‘EVERGREEN’  
02 벽화 그리기에 한창인 대학생 봉사단  
03 완성된 벽화

함께하는 사랑밭은 제도상의 문제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지원하는 구제단체다.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서대문구 흥은동에서 ‘함께하는 사랑밭’이 진행하는 ‘행복한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 중로노인종합복지관 배식 봉사



01 힘을 모아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팀원들  
 02 식사 한 끼지만 따뜻한 정성을 담아 배식한다.  
 03 다 같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봉사

###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중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중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점심에만 350명에서 400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러 방문하시기 때문에 항상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배식 봉사는 5월부터 새로이 시작하게 됐다. 이번 봉사에는 세플러코리아 직원들뿐만 아니라 불교대학 동문회원들,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파견된 어르신 세 분도 함께 참가했다.

### 맛과 영양에 진심까지 더해드립니다

봉사에 참여한 정보시스템 팀원들은 먼저 흠, 설거지, 배식으로 각자의 담당을 나눴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도 덥고 힘든 설거지 담당에는 기사도로 무장한 남직원들이 먼저 자원했다. 집에서는 아내의 설거지를 돕는 가정적인 남편이거나 자신이 먹은 것을 치우는 자취남이지만 오늘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해 설거지를 한다며 파이팅 넘치게 고무장갑을 착용했다. 흠과 배식 담당을 맡은 직원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 더해 흠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말벗 역할도 해드렸다.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게 반찬을 잘라드리기도 하고, 미지근한 물을 센스 있게 준비해 드리기도 하는 우리회사 직원들을 보며, 식사하러 오신 어르신들은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땀 흘려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정보시스템 팀원들. 그들이 나눠드린 따뜻한 밥 한 공기, 국 한 대접이 세월의 흔적 묻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뜻깊은 날이었다.

6월 20일,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 정보시스템팀 고봉문 과장, 김기정 부장, 박상권 부장, 이혜진 사원, 정승균 사원과 경영지원팀 민유정 대리는 중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밥 한 공기에 사랑과 온정을 담은 이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들여다보자.

# 열정과 끼로 충만한 신입사원들을 소개합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신입사원이 선발되었다. 여름보다 더 'HOT'한 열정으로 뚝뚝 뚫힌 신입사원들의 포부를 '앞으로 나는 oo한(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통해 들어 보았다.



창원공장 3PU 설비보전3팀 사원 박상내

앞으로 나는 <친절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나도 글로벌 기업의 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내를 낳은 아이를 가질 겁니다.



창원공장 3PU 설비보전3팀 사원 송영수

앞으로 나는 <노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사원 신승수

앞으로 나는 <능력을 향상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 일원이 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 생산팀 사원 강태우

앞으로 나는 <발전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의 신입사원이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기개발에 힘쓰고 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습니다.



창원공장 유틸리티운영팀 사원 박희동

앞으로 나는 <생각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CAD와 CAM을 마스터하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이 앞으로의 소망입니다.



물류팀 중부물류센터 사원 신동철

앞으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 일원으로 같이 일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국내 박물관과 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물류팀 중부물류센터 사원 조상훈

앞으로 나는 <정진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좋은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나 정말 좋고 안정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 New employees



서울사무소 인사팀  
사원 김보현

앞으로 나는 <인사 잘 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하루 빨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사무소 T/M&사시시스템영업2팀  
사원 강세진

앞으로 나는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인이 된 건 황홀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권상우' 같은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 T/M&사시시스템영업2팀  
사원 장용건

앞으로 나는 <다재다능하고 성실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평소 꿈꿔왔던 기업에 입사하여 영광입니다. 올해는 '하연수' 같이 귀엽고 이쁜 여자친구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사무소 T/M&사시시스템영업2팀  
사원 박지선

앞으로 나는 <역량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한 사원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칭찬만 받는 사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사무소 Industrial 부문  
사원 최찬길

앞으로 나는 <지속 성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와 함께 세상을 움직이겠습니다. 입사 후에는 대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사무소 Industrial 부문  
사원 김진후

앞으로 나는 <차두리 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앞으로 '차두리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꼭 복근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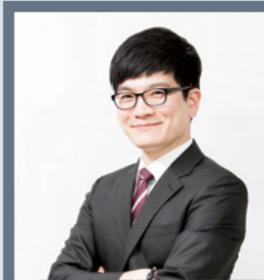
서울사무소 사업관리팀  
사원 사덕하

앞으로 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주말에 국내여행을 많이 해볼 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 재경팀  
사원 임승준

앞으로 나는 <글로벌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의 일원으로서 기대에 부합하는 직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실무 이해에 만전을 기하며, 외국어 실력(독일어)을 늘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남부작납영업팀  
사원 이경동

앞으로 나는 <팀의 마스크트가 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평소 꿈꿔온 세계적인 기업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업무를 빨리 익히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싶습니다.



공정기술사업부 공정개선팀  
사원 김창학

앞으로 나는 <잔머리 굴리지 않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글로벌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 어학 공부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창원공장 3PU 선삭팀  
사원 박기득

앞으로 나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정말 원하던 기업 원하던 직무에 취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주짓수 등을 배우며 더욱 강한 체력을 만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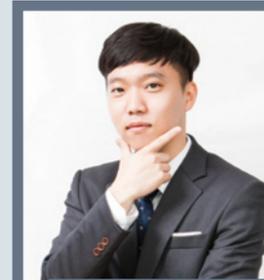
L&K사업부 영업관리/기획팀  
사원 안흥제

앞으로 나는 <적극적이고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세플러에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2015년이 되기 전에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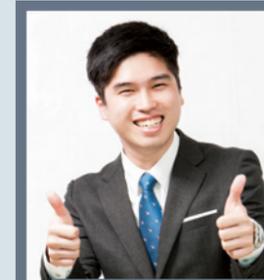
안산공장 공정운영실  
사원 김기호

앞으로 나는 <자전거로 출근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계 최고 세플러 그룹의 일원이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여자 친구와 월드컵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이 꿈입니다.



L&K사업부 영업/마케팅팀  
사원 유경호

앞으로 나는 <상큼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원하던 곳에서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데 올해는 골프와 킥복싱을 배우고 싶습니다.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연구원 김중휘

앞으로 나는 <only one 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성실 근면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여자친구 만드기가 목표입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김현용

앞으로 나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원하던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현재는 빨리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잘 뻗었다는 소리, 뚝뚝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김대곤

앞으로 나는 <하이브리드 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좋은 성과를 만드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이병훈

앞으로 나는 <내 사람이 많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직장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평소 취미인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45분 이내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정봉구**

앞으로 나는 <즐거움>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계적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사에 적응하겠습니다.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 사원 **이진수**

앞으로 나는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선배님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흡수하겠습니다.



전주공장 공장운영실 사원 **장재화**

앞으로 나는 <3개 국어가 가능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유능한 선배님들과 일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스페인어 학습 등으로 다재다능한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전주공장 공장운영실 사원 **박종일**

앞으로 나는 <성실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너무 감사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팀원 분들을 저 념식사에 초대해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Key Account Management 차장 **한수진**

앞으로 나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글로벌기업인 세플러그룹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세플러의 기술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진정한 세플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공장 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전진환**

앞으로 나는 <special 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여 영광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워서 진정한 엔지니어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Luk사업부 T/Con 기술팀 대리 **정석열**

앞으로 나는 <균건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기술선진 기업이라는 인상이 강한 세플러코리아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건한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T/M&S시스템 영업팀 사원 **임주혁**

앞으로 나는 <변하지 않는 상록수 같은>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 상상 이상으로 기쁩니다. 처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끊임 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전주공장 설비보전팀 사원 **이병열**

앞으로 나는 <유연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글로벌 기업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계발(영어공부)에도 매진할 생각입니다.

## 장기근속상 부부동반 해외여행 실시

2014년 창립기념 장기근속상 부부동반 해외여행이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대상자는 20년 및 30년 근속상 수상자 및 그 배우자였으며,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30년 장기근속상 수상자는 미국을 여행할 수 있으며, 20년 장기근속상 수상자는 호주 또는 유럽 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여행하게 됩니다.

### 여행기간

미국	2014. 05. 20 ~ 05. 26(7일)
호주	2014. 05. 21 ~ 05. 26(6일)
유럽 1차	2014. 05. 15 ~ 05. 20(6일)
유럽 2차	2014. 05. 16 ~ 05. 21(6일)
유럽 3차	2014. 05. 22 ~ 05. 27(6일)
유럽 4차	2014. 05. 23 ~ 05. 28(6일)
유럽 5차	2014. 06. 07 ~ 06. 12(6일)
유럽 6차	2014. 06. 12 ~ 06. 17(6일)
유럽 7차	2014. 09. 24 ~ 09. 29(6일)
유럽 8차	2014. 10. 04 ~ 10. 09(6일)
유럽 9차	2014. 10. 14 ~ 10. 19(6일)

### 주요 여행지

#### 유럽

인천 → 모스크바 → 파리 도착 → 루브르박물관, 에펠탑, 세느강 유람, 베르사유 궁전 등 명소 관광 → 스위스 이동 → 필라투스 등정, 루체른 관광, 취리히 시내 명소 등 명소 관광 → 모스크바 → 인천

#### 미국

인천 → 샌프란시스코 도착 → 금문교, 베이크루즈 유람선 탑승, 헨리코웰 레드우드 주립공원, 몬트레이 17마일 드라이브 코스 명소 관광, 캘리포니아광촌 관광, 라스베이거스 야경 감상, 라스베이거스 쇼, 그랜드캐년 사우스리프 관광, 아이맥스 영화관, 맨즈차이니스 극장, 한인타운, 할리우드 등 명소 관광 → 로스엔젤레스 출발 → 인천

#### 호주

인천 → 시드니 도착 → Lost World of Reptiles and Spider World, 사막투어, 모래썰매, 돌핀 크루즈 탑승, 펠리칸 Feeding Tour,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드니 수족관, 쇼보트 디너 크루즈 탑승, 시드니 동부해안 관광 →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세인트 메리성당 등 명소 관광 → 시드니 출발 → 인천

### 장기근속상 부부동반 해외여행 후기

## 사모트라케의 니케

글 \_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생산팀 장대영 사위의 처 **김세은** 씨

결혼하기 전에는 해외 가는 것이 설렘만 기대반이었는데, 일상에 지쳐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이런 나를 깨운 것은 모스크바로 향한 비행기 아에로플로트. 두 번 나온 북유럽 풍의 기내식도 파리를 향한 나의 열정을 서서히 일으켰다. 경유 시의 긴 대기 시간과 빈번한 분실사고로 모스크바 공항을 꺼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 팀

은 분실사고 없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러 갔다. 호텔 키리야드(메트로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눈이 뜨인 것은 새벽 3시 30분, 모두들 시차에 적응이 안 되어, 새벽 5시도 못되어 로비에 나와 앉아 있다. 우리 팀은 8시 아침식사가 예약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일찍 식당에 모였다. 메뉴가 간단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회사에서 아침식사를 중요시 하는 한국 식단을 배려해 뷔페식으로 바꿔주셔서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키리야드에서 10분 정도 나와 삼성, 기아 건물을 지나, 국가 대표팀의 홈구장인 '스타드 드 경기장'을 옆으로 돌아서니, 엄지

손가락 크기의 에펠탑이 보였다. 가까이서 보니 좀 내 눈 엄지손가락이 무색할 정도로 한 참을 고개를 젓혀 바라보았다. 원래 목적인 전파 수송탑이었다는데, 수송탑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다니. 예술가의 고장답구나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2층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센 강, 개성문, 나폴레옹 잠들어있다는 황금색 돛의 앵발리드, 파리는 파리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 태양광과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나기 위해 베르사유 궁전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궁전 안에는 거울의 방, 전쟁의 방, 평화의 방, 루이 14세의 이름이 붙은 방들이 있다. 예배당과 그 앞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오페라



의 방을 제외하곤, 주로 볼거리는 2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기대보다 작았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침실과,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개최되었던 거울의 방과, 다비드의 또 다른 '나폴레옹 대관식' 등을 관람하였다.

파리를 낭만의 도시로 만든 센 강의 유람선 바토무슈를 직접 타고, 넓은 창 모자 속으로 이국의 강바람을 가득가득 집어넣으며, 센 강의 세월을 만끽했다. 여태껏 목적을 지닌 관광이었다면, 이제는 이유 없이 떠난 여행이었다. 서울의 한강과 비교하면 좁은 강이지만, 강변 돌레의 에펠탑, 오르세 미술관, 노트르담 대성당, 풍네프 다리, 시인의 미라보 다리, 에펠탑 지상 전망대인 이에나 다리(에펠탑과 사요궁전 사이) 그 외 모든 건물들이 고풍스러움과 낭만을 지닌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냈다. 파리의 밤은 늦은 시각에 찾아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에펠탑의 야경은 보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 아침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는 하나, 129m 높이 밖에 되지 않는, 마르스(군신)의 언덕(Mont de Mercure)이라는 뜻의 몽마르트 언덕에 올랐다. 정상에 사크레쉴르 대성당으로 오르는 길에 만난 하프연주자의 '모정'은, 축제 끝에 터지는 폭죽 같이 반짝이는 분수와 함께 나의 발목

을 잠시 붙들었다. 가마솥 보다 더 큰 팬에 막 구워낸 소시지로 호텔에서 채우지 못한 아침 배를 달래고 뒤늦게 고흐를 찾아 나섰다.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박물관,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과 더불어 세계3대 박물관 중 하나이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티치아노의 작품 등 이태리 거장들의 작품과 고대 조각 작품을 보관하게 되면서 루브르의 박물관으로서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루브르의 모든 작품을 관람하려면 석달도 모자라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짧은 여정에 루브르를 완벽히 보고 가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다음을 기약했다. 프랑스 여행은 나에게 낭만과 즐거운 추억뿐 아니라 배움도 선물했다. 예술과 문화,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보존, 실천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프랑스인의 노력들... 많이 보고, 느끼고, 반성하게 한 프랑스어 이젠 안녕!

벨포르까지 기차로 와서 버스로 스위스 국경을 넘었다. 파리의 호텔이 게스트하우스였다면 알펜호프는 하이디가 이웃에 있겠구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예쁜 숙소였다. 이곳까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찾



아왔는지 모르겠다는 마담의 말에 대기업 부럽지 않을 만큼 세플러인것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이 가슴 뜨거운 감동을 만들어 목 밑까지 차올랐다. 파리는 인간이 신을 흉내 낸 작품이라면, 스위스는 신이 주신 작품 그대로였다. 이런 것을 자연이라 하는구나. 만년설, 가파른 경사를 축구장 같이 깎아 놓은 들녘, 드문드문 있는 인형의 집들 그 또한 자연이었다. 크리엔스에서 탄 파노라믹 곤돌라속에서 연신 사진 찍었던 것이 계면스럽게 필라투스영봉의 비경은 달력, 엽서, 화보 그 자체였다. 계곡을 울리는 알펜호른 소리와 함께 용이 헤엄치고 있을 법한 운해, 그리고 그 리스도를 처형한 로마의 빌라도 망령이 이산에 정착했다는 전설을 험준한 경사를 내려가는 톱니바퀴 산악열차 속에서 온 몸으로 보았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집 파리와 하이디의 집 알프스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아시아 여행은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 없었는데(터키, 오만을 제외) 집으로 돌아가면 '당장 유럽여행 모임부터 만들어야지' 할 정도로 다시 찾고 싶은 곳, 머리부터 눈, 귀... 발끝까지 담아가는 추억들이었다. 특별하기도했지만 이전 여행들과는 다른 특별한 동행자들과 함께여서 더욱 기억에 남을 듯하다. 어느 한 분이 눈물을 보이었다. 회한과 감사의 눈물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여행이 아름답고 훌륭했던 것은 분명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현지 가이드 최용 님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게 수고 많으셨던 우현식 님, 안지훈 님께 감사드리며, 덤핑여행과는 전혀 다른 선물과 감동의 문화, 예술, 자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세플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래도록 자랑으로 가슴 깊숙이 남을 것이다.

2014 Summer

### Schaeffler Korea News

서울 사무소 • BearinX 9.0 교육 실시



4월 18일, 당사 섹터, 기술서비스팀 및 세일즈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BearinX 9.0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서는 9.0으로 버전업이 이루어진 BearinX의 개정되거나 신규로 생성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 업무에서 BearinX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 사무소 • 2014년도 경영설명회



4월 22일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014년도 경영설명회는 4월 21일, 안산공장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전 사업장을 돌며 진행되었다. 경영설명회에서는 현재의 경영 상황에 대한 김재현 사장의 브리핑과 함께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명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각 사업장의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전문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함께 사업장 별로 저녁식사를 하며, 부서 간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서울사무소 • 마라톤동호회 14년 상반기 활동



5월 18일, 마라톤 동호회원 14명은 전국마라톤협회에서 개최하는 10km 마라톤에 참가하였다. 마라톤은 한강시민공원 독섬지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동호회원 모두 10km를 완주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라톤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뒤 해산하였으며, 하반기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은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사무소 • 2014년도 철강 심포지엄 개최



5월 27일부터 이틀간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철강 업체들을 대상으로 철강 심포지엄(Steel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Steel Mill용 베어링, 품질 관리, 베어링 설치 및 해체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들과의 토론도 이루어졌다. 철강용 베어링을 전시하여 직접 고객에게 설명함으로써 고객들의 철강용 베어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서울사무소 • 2014년도 창립기념식 행사

6월 2일, 세플러코리아 창립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날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장기근속자 및 모범사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장기근속자 17명, 모범사원 5명에 대해 시상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재현 사장의 창립기념사가 있었고,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직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마무리 되었다.

2014 Summer

서울사무소 · 축구동호회 14년 2분기 활동



6월 19일, 서울사무소 축구동호회의 14년도 2분기 모임이 있었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마련된 실내 풋살장에서 14명의 동호회원이 모여 퇴근 후 함께 2시간 가량 운동을 즐긴 후, 저녁식사를 한 뒤 이날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서울사무소 · 현대기아 협력회, 사회공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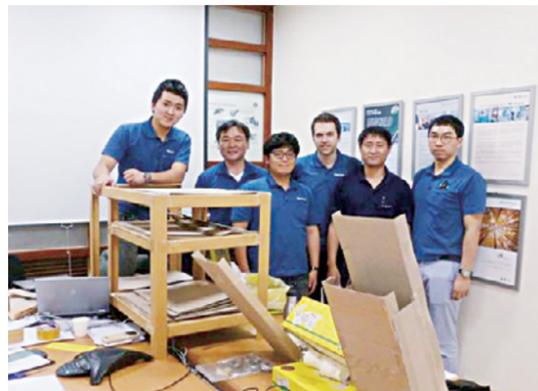
6월 20일, 현대 · 기아 협력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있었다. 이날 우리 회사를 비롯하여 두울, 리한, 세방전지, 신한발브 공업 등의 현대기아 협력회 회원사가 바오로 교실을 방문하였다. 바오로교실은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시설로 교육 및 재활에 필요한 상담, 지도 및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인 봉사에 앞서, 지적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교육이 먼저 진행되었다. 교육 후에는 지적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나들이 봉사가 이루어졌다. 월드컵 경기장 산책과 더불어 카페에서 팥빙수를 먹으며 무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들이 봉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현대기아 협력회 이름으로 2014년 2사분기 후원금 50만원을 바오로 교실 측에 전달하였다.

안산 · 협력업체 안전의식 강화 전달교육



6월 20일, 1차 협력업체 6곳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의식 강화 교육의 취지 및 당부사항, 재난관리 및 기업의 재해경감제도에 대한 이해,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산 · MTM 워크숍 실시



6월 16일부터 5일간 본사 Process Integration Manufacturing 소속의 Mr. Bruckdorfer, Klaus와 함께 안산공장에서 MTM (Method time measurement)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1일 차에는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일정간에는 작업 개선 워크숍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MTM 워크숍을 통해 수동 조립라인에서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반경, 작업방법 등을 통해 C/T 타임을 절 수 있었으며, C/T 및 작업개선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전주 · 5월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전주공장에서는 직원 부모님 120명을 모시고 전남 소록도 및 거금도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하기 좋은 맑은 날씨에 어르신들께서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사진 촬영도 하였고 자녀들의 회사에 긍지를 느낀다고 하셨다.

전주 · 5월 봉사활동 실시



4월 26일 생산2팀, 전주물류 직원 및 가족 12명이 소화진달래 집에 방문하여 대청소와 고추밭 일구기를 하였으며 5월 24일 전주공장 생산3팀, 공정기술팀 직원 및 가족 22명은 임마누엘 동산 요양원에 방문하여 대청소를 하고 철쭉 가지치기 봉사를 하였다.

전주 · 전주공장 직급별 간담회 실시



전주공장에서는 6월 16일부터 3주간 매주 월요일 사원, 대리/과장, 차장/부장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 Silent Brain Storming을 통한 회사 및 공장 발전을 위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주 · 보훈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식

6월 20일 전주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자녀 5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창원 · 창원공장 어버이날 행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사원 부모님 초청, 효도관광 행사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매년 어버이날에 실시하는 정기적인 행사이다. 이번 효도관광에는 사원 부모님 180명과 보조 안내원 20명 등 약 200명이 단체 버스를 이용하여 거제도로 이동 후 통영 케이블카 탑승,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지 관람, 거제도 특산 음식을 겸한 점심식사 후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1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사원 만족도와 사원 부모님 호응도가 매우 큰 행사로 매년 참여 인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창원 · 환경안전보고회 개최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창원공장 1층 강당에서 환경안전팀 주관 환경안전보고회를 가졌다. 환경 안전 주요 이슈 안내와 PU별 개선사례 발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 자료 시청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하절기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응 요령과 선상 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창원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실시

창원공장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보훈 가족 50여 명이 영산 호국원을 방문하여 순국 선열에 대한 참배 및 호국 정신을 기리는 참여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소 · ARNOP 워크숍 실시



4월 29일, Mr. Geisselbrecht, Harald(Specialist,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chaeffler Technologies)가 연구소를 방문하여 세플러 그룹의 생산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보분류 체계인 ARNOP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기술주도적 기업인 세플러 그룹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소 · 세아베스틸 강증 회의



5월 21일, 이상운 상무를 비롯한 세아베스틸 임직원 5명은 연구소를 방문하여 이대용 연구소장을 비롯한 재로그룹 연구원들과 신강종 개발 및 원재 품질 개선을 위한 강증회의를 개최하고 양사간 베어링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당사 제품 성능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의 기회를 가졌다.

연구소 · RFQ 트레이닝 진행



세플러 그룹의 건적요청 절차의 공유 및 이해를 통한 그룹과의 협력기회 증대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Ms. Wang, Xiuxiu(Process integration development, Schaeffler Technologies)가 안산기술연구소와 창원연구소를 방문하여 RFQ(Request For Quotation) 트레이닝을 진행함으로써 신제품 개발절차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연구소 · 고객사 BeariX 온라인 교육 실시



남부직남영업팀 석철우 과장과 정준화 과장이 강사로 참가하여 IB 주요 고객사인 두산모트롤과 두산인프라코어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최적의 베어링을 선정할 수 있는 BeariX 온라인 시연 및 교육서비스를 교육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파트너십을 제고하여 판매 촉진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고 BeariX 온라인을 유상으로 설치함으로써 향후에도 영남지역의 주요 고객사에 지속적으로 BeariX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사무소

2014. 4

중부물류센터 이재우 | 4일 부친회갑

경영지원팀 차경식 | 15일 장인상

남부작남영업팀 김현락 | 18일 모친상

남부물류센터 서의성 | 21일 장인상

글로벌영업팀 김성수 | 25일 장인상

2014. 5

중공업설비센터 김광현 | 2일 모친회갑

중부작남영업팀 이태양 | 10일 본인결혼

영업관리기획팀 왕희성 | 22일 부친회갑

중부물류센터 이재우 | 31일 본인결혼

2014. 6

글로벌영업팀 김민진 | 4일 장인회갑

신원기계센터 정혜진 | 13일 모친회갑

직접자재구매파트 송유훈 | 21일 본인결혼

2014. 7

중부물류센터 정우진 | 6일 부친회갑

창원공장

2104. 3

설비보전팀 이은상 | 8일 장인회갑

남부물류센터 이교성 | 21일 모친상

테이퍼베어링열처리팀 장덕환 | 30일 친조부상

2014. 4

단조팀 김경관 | 4일 자녀출산

공장운영실 조종도 | 5일 본인결혼

유틸리온영팀 최진성 | 10일 자녀출산

설비보전팀 백성택 | 11일 장인상

베어링열처리팀 나형주 | 13일 부친상

설비보전팀 이현오 | 15일 장인상

유틸리온영팀 황태봉 | 16일 모친상

베어링생산2팀 류영철 | 17일 장모상

PJ사업부 김재욱 | 20일 자녀결혼

남부물류센터 서의성 | 21일 장인상

품질시스템팀 김진곤 | 23일 부친상

테이퍼베어링생산팀 노성욱 | 27일 본인결혼

베어링열처리팀 노치문 | 27일 자녀결혼

테이퍼베어링생산팀 최기영 | 28일 부친회갑

베어링열처리팀 강경만 | 29일 자녀출산

2014. 5

선식팀 김현태 | 1일 모친상

업무지원팀 김승환 | 3일 자녀결혼

테이퍼롤러생산팀 강우혁 | 9일 모친회갑

베어링열처리팀 김성민 | 17일 본인결혼

테이퍼롤러생산팀 이학민 | 18일 본인결혼

테이퍼베어링생산팀 최기영 | 19일 모친회갑

선식팀 김성민 | 22일 장인상

테이퍼롤러생산팀 이은양 | 24일 장모상

테이퍼롤러생산팀 장영일 | 24일 본인결혼

선식팀 이명규 | 26일 장모회갑

테이퍼베어링생산2팀 김철호 | 30일 부친상

단조팀 김대현 | 31일 본인결혼

베어링열처리팀 심성섭 | 31일 자녀결혼

2014. 6

테이퍼베어링생산팀 김석식 | 1일 본인결혼

테이퍼베어링생산팀 박현석 | 14일 본인결혼

유틸리온영팀 황태봉 | 14일 자녀결혼

단조팀 최성동 | 21일 본인결혼

안산공장

2014. 4

공무팀 박승범 | 1일 모친상

생산팀 이금주 | 5일 장모회갑

생산팀 이장성 | 8일 부친회갑

생산팀 광신근 | 12일 본인결혼

생산팀 안철성 | 1일 모친회갑

2014. 6

생산팀 정명호 | 21일 본인결혼

생산팀 정명호 | 21일 본인결혼

전주공장

2014. 3

생산팀 강성민 | 3일 장모회갑

생산팀 이선택 | 7일 부친회갑

생산팀 임갑수 | 10일 자녀출산

전주물류센터 박진욱 | 10일 부친상

생산3팀 이용태 | 11일 자녀출산

공장기술팀 김부태 | 14일 조모상

품질보증팀 박형권 | 21일 장인상

생산2팀 채현석 | 24일 장인상

2014. 4

생산2팀 이상철 | 10일 조모상

품질보증팀 박준현 | 14일 부친상

생산2팀 서운욱 | 19일 본인결혼

생산3팀 김영률 | 25일 장모회갑

생산3팀 윤성길 | 25일 자녀출산

생산3팀 김호중 | 28일 자녀출산

2014. 5

품질기술팀 한서훈 | 14일 부친상

생산3팀 양정민 | 19일 자녀출산

생산3팀 김대기 | 24일 본인결혼

품질기술팀 한서훈 | 27일 자녀출산

공장운영실 안사근 | 29일 장모상

2014. 6

사업관리팀 최명석 | 2일 자녀출산

품질보증팀 최미라 | 2일 모친회갑

설비보전팀 이자남 | 9일 모친상

생산2팀 황재운 | 9일 자녀출산

설비보전팀 김봉철 | 16일 장모상

생산2팀 박재영 | 17일 장모상

연구소

2014. 4

제품기술팀 손창익 | 14일 장인회갑

전용개발팀 권신복 | 18일 장인회갑

2014. 5

전용개발팀 이정훈 | 10일 본인결혼

제품기술팀 김용수 | 19일 자녀출산

